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7년 6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 및 '동지' 표현은 삭제
ex)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②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개황·동향 제목·동향 개요·주간 보도일지·주요인물 동정: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표기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나. 북한 주요 인물 직책 표기

o 북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하되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직책만 표기

o 동일한 '대내·대남·대외 동향 주요 내용'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 직책은 최초 1회만 표기하며 이후에는 이름만 표기 ('주요인물 동정' 및 '주간 보도일지'에서는 대표 직책 표기)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개 황

대내동향

7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7 '강서 약수공장' 시찰

8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10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 및 연설

12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13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14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

14 초·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5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16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17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17 박봉주 내각 총리 현지 시찰

18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현지 시찰

20 '국제 아동절'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진행

21 기계공업성 공장·기업소, 상반기 주요 계획 조기 완수

23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폐막식

24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식

25 '세계 급혈자의 날' 행사 등 진행

26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진행

27 고려약재를 이용한 '치료용 화장품' 선전

28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29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 만화영화 창작

Contents

대남동향

30 「민화협」 대변인 담화

33 「민화협」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36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37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39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41 「조평통」 성명

44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성명

46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47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49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51 「조선 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52 「민화협」 공개 질문장

54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

56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57 「강제 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대외동향

58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60 「외무성」 대변인 담화

63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66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67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성명

69 「외무성」 보도

Contents

71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72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73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74 「조선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75 **주요인물 동정**

88 **월간 보도일지**

131 **금월의 약사**

개 황

대내동향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o △'강서 약수공장' 시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 및 연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6.3~6.9, 중통·중방·노동)

o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 △초등학원[1]·중등학원[2]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1, 중방)

o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6.20, 중통·중방)

o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30, 중방)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o 박봉주 내각 총리, △평안남도 숙천군·문덕군 농사실태 시찰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및 청진 제강소 시찰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과 강원도 내 양묘장, 어구 종합공장 시찰 △강령군·옹진군의 농사실태 시찰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시찰(6.1~30, 중통·중방·노동)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원도 여러 단위 현지 시찰 △황해남도 재령군 가뭄피해 시찰(6.21.~28, 중통·노동)

'국제 아동절'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진행

o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3] 진행 보도(6.1, 중통·중방·노동)

기계공업성 공장·기업소, 상반기 주요 계획 조기 완수

o 기계공업성 아래 20여 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상반기 '공업 총 생산액 계획', '중요 지표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보도(6.8, 노동)

---

1) 초등학원 : 『북한어』 전쟁고아나 특수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
2) 중등학원 : 『북한어』 고등중학교에 갈 나이의, 부모 잃은 어린이들을 맡아서 키우면서 그들에게 중등교육을 하는 보통 교육 기관.
3) 연환모임(련환모임) : 『북한어』 둘 이상의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경축하고 즐기는 모임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폐막식

o 조선소년단 창립 71주년 맞이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 작품[4] 및 모형 전시회-2017’의 폐막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6.8, 중통·노동)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식

o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6.13, 중통)

‘세계 급혈자의 날’ 행사 등 진행

o △‘세계 급혈자의 날[5]’ 행사가 진행되었고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가 진행될 것(6.14~15, 중통)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진행

o ‘장애자의 날[6]’ 기념모임 진행(6.18, 중통)

고려약재를 이용한 ‘치료용 화장품’ 선전

o 고려약재를 이용한 ‘은하수’ 상표의 ‘치료용 화장품’ 선전(6.23, 중통)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o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보도(6.28, 중통)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 만화영화 창작

o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만화영화 ‘소년장수’ 등을 창작했다고 보도(6.28, 중방)

4) 과학 환상작품 : 『북한어』『문학』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인간들의 활동과 모험을 환상적인 수법으로 그린 문예 작품. 주로 공상과학 소설과 공상과학 영화가 여기에 속함.
5) ‘세계 헌혈인의 날’의 북한식 표현
6) ‘장애인의 날’의 북한식 표현.

대남동향

「민화협」 대변인 담화

o 박 前 대통령 재판 관련 보수세력 비난(6.2, 중통·중방·평방)

o 우리 정부에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책임 전가 및 '대북정책 전환' 촉구(6.15, 중통·중방)

o '극우 보수단체들의 재결집 움직임' 비난 및 '반보수 투쟁' 선동(6.30, 중통·중방)

「민화협」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지지 비난(6.8, 중통)

o 웜비어 사망 관련 우리 정부의 '억류국민 송환 요구' 비난 및 "우리(北) 주민(집단 탈북 女종업원·김련희 등) 송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6.23, 중통·평방)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집단탈북 女종업원 12명과 김련희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며, "송환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6.9, 중통·중방)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o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보수 세력, 미국, 우리 정부 반응 비난 및 '사드 배치 철회 투쟁' 선동(6.10, 중통·중방)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o '신효순·심미선 양 사건'(2002.6.13.) 15주기 즈음, 미국 비난 및 반미 투쟁 선동(6.12, 중통·중방)

o '의정부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6.17, 중통·중방·평방)

「조평통」 성명

o 6.15공동선언 17주년 즈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적 입장(△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천명 및 '대북정책 전환' 압박(6.14, 중통·중방·평방)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성명

o 우리 언론의 '북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보도 관련 비난 및 위협(6.16, 중통)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o 日 아베 총리 특사(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촉구 및 '반일 투쟁' 선동(6.16, 중통·중방)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o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관련 비난 및 '반미 투쟁' 선동(6.18, 중통·평방)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文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17주년 축사' 등 대북 발언 비난 및 '정책전환' 촉구(6.21, 중통)

「조선 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o '보안법 철폐' 및 '통일 애국 인사 석방' 촉구(6.22, 중통)

「민화협」 공개 질문장

o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태도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관련 '9개항 질문' 제시 및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해 '책임적 결단' 촉구(6.24, 중통·중방)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 시도'를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위협 및 우리 정부에 '관련자들의 북한 인도' 요구(6.28, 중방·중통)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文 대통령의 '현무-2' 시험발사 참관 시 대북발언 및 '2017년 통일훈련' 비난(6.29, 중통·중방)

「강제 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o '집단탈북 여자 종업원 및 탈북민 김련희 송환' 촉구(6.29, 중통·평방)

대외동향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o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 합동훈련(5.31.)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비난 및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 결사전은 계속될 것' 강조(6.1,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담화

o '미국 독자제재(6.1.)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6.2.)'은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을 노린 적대행위'라고 전면 배격 및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역설(6.4, 중통)

o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對쿠바정책' 관련 비난 △웜비어 사망 관련 '북한 고문·구타說'에 대한 배격 및 미국 비난(6.22~23,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대해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난(6.6, 중통·중방)

o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의 '북한 대표단 외교행낭 압수' 관련 미국 정부의 사죄 요구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 및 폭격훈련 관련 비난·위협(6.18~22, 중통·중방)

o 미국 국무부의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북한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 발표에 대해 비난 및 위협(6.30, 중통·중방)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o 日 아베 수상 등의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對北 비난 및 독자제재 등 움직임에 대해 "유사 시 미국보다 먼저 일본 열도가 초토화될 수 있음"을 위협(6.8, 중통·중방)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성명

o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 관련 비난 및 위협(6.10, 중통)

「외무성」 보도

o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경제·보건·인도주의 분야 등 대북제재' 관련 비난 및 위협(6.16, 중통)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o '세계 피난민의 날[7]'(6.20.) 즈음 '현 시기 피난민 사태의 원인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외정책 때문'이라고 비난(6.17, 중통)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 성명 채택'(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에 대해 비난(6.28, 중통·중방)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o 미국의 군사적 압박(니미츠·레이건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B-1B 전략폭격기 모의 폭격훈련 등)에 대해 비난 및 위협(6.29, 중통)

「조선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북한 反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설비 유엔제재 위반 구입, 스키장 운영에 아동노예 노동력 이용 등' 발언에 대해 비난(6.30, 중통)

7) '세계 난민의 날'의 북한식 표현.

대내동향

김정은 당 위원장 공개 활동

▌개 요

o △'강서 약수공장' 시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 및 연설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6.3~6.9, 중통·중방·노동)

o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 △초등학원·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1, 중방)

o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6.20, 중통·중방)

o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30, 중방)

▌'강서 약수공장' 시찰(6.3,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안정수, 김용수, 조용원

* 영접 : 강양모, 공장 일꾼들

o 김정은 당 위원장(이하 '김정은')이 강서 약수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예로부터 치료 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강서약수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한 김일성에 의하여 1973년 3월에 창립된 강서 약수공장은 생산량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약수 생산기지로 전변되였음.

o 김정은은 지난 4월 강서 약수공장에 약수 운반용 자동차들을 비롯한 사랑의 선물들을 보내주는 은정을 베풀어주었음.

o 김정은은 공장 전경도와 약수 생산 공정도 앞에서 해설을 듣고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았음.

- 강서 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사랑의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종합조종실과 여러 생산 작업반, 제품전시장, 원수장, 과학기술 보급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실태와 경영 활동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o 김정은은 강서 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 약수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약수 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데 대한 문제,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릴 데 대한 문제, 늘어나는 생산량에 맞게 포장 용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는 약수를 다루는 것만큼 위생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늘 깊은 관심을 돌릴 데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사람들의 몸에 좋은 이름난 강서 약수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 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강서 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는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김정은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6.5, 중방·노동)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영접 : 황병서, 박영식, 김원홍, 리영길, 조남진, 조경철, 김광혁, 손철주

o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였음.

o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이 비행장에 나왔음.

-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영도로 주체적 항공군 강화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김정은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음.

o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김광혁 항공군 상장이 개회사를 했음.

- 대회가 선언되자 혁명송가 '김정은 찬가'가 주악됐음.

o 김정은은 주석단 앞에 정렬한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고 감시소에 올라 경기대회를 지도하였음.

- 대회는 사단장·려단장조, 추격기·폭격기·습격기 련대장조, 경수송기·직승기[8]·교육기 련대장조, 비행사 양성기관을 갓 졸업한 젊은 비행사조로 나누어 진행됐음.

- 경기대회 순위는 이륙, 습격, 초저공 및 비행전, 요격비행, 자유 공중전투 등을 판정요소로 정하고 각종 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됐음.

o 경기대회의 시작과 함께 경비행기들이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창공높이 날리며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비행운을 새겼으며 추격기들이 기교비행을 진행했음.

- 김정은은 전투 비행사들의 여러 가지 기교비행 동작들을 잘 수행한다고, 과학적인 조정과 완벽한 비행술을 남김없이 펼쳐보여 주었다고 못내 기뻐했음.

o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뒤를 이어 사단장, 려단장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에 날아올라 타격목표 소멸, 비행장 상공 초저공 통과 및 상승회전, 착륙 등을 멋들어지게 진행했음.

- 김정은은 적국 항로를 따라 30m 초저공 비행을 진행하다가 도약하여 불의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실전에 필요한 비행술이라고 하면서 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제일 먼저 나갈 수 있게 준비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기고 평시에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특히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의 비행술이 대단히 높다고 환하게 웃었음.

o 김정은은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의 치열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며 오늘 경기대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기대회들 중에서 제일 잘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였음.

o 김정은은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부강조국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지는 조국의 영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미더운 전투 비행사들이 있기에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 것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항공군 안의 모든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훈련 열풍의 불가마 속에서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일단 최후공격 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 버릴 수 있게 준비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싸움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주었음.

o 김정은은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새 세대 전투 비행사들의 전투적 기상과 용맹을 과시한 젊은 비행사들을 만나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8) 직승기 :『북한어』헬리콥터.

o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음.

-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했으며 우승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했음.

o 경기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주악으로 끝났음.

o 김정은의 지도 밑에 주체적 핵 강국 건설에서 특기할 사변적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은 당의 훈련혁명 5대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군의 백두산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사회주의 조선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막아보려고 부질없이 발버둥질 치는 철천지 원쑤 미제와 그 졸개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벌을 치루고야 말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멸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됨.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 및 연설(6.7, 중통)

o 일자 및 장소 : 2017. 6. 6(화), 4.25문화회관

* 주석단 : 최룡해, 최태복, 리일환, 김승두,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 대표들

o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6일 4.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음.

- 대회에는 전국 소년단 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 대표들이 참가하였음.

o 김정은이 소년단 대표들을 한품에 안고 대회장 주석단에 나왔음.

- 김정은에게 소년단원이 붉은 넥타이를 매여드리였음.
- 김정은에게 소년단 대표들이 향기 그윽한 꽃바구니를 드리였음.

o 김정은은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올리는 소년단 대표들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음.

o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 되였음.

1. 소년단원들을 김정은에게 끝없이 충직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데 대하여
2. 조선소년단 규약 개정에 대하여

o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욱마다에는 소년단원들을 당과 조국에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김일성과 김정일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리여 있다고 언급하였음.

- 보고자는 소년단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태양기를 소년단기 앞에 휘날리며 김정은에게 충직한 강성조선의 역군들로 튼튼히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음.

- 토론자들은 김정은을 높이 모시고 뜻깊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참가한 영광과 기쁨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 활동과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더 잘하여 참된 소년혁명가로 준비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음.

- 김정은은 소년단 대표들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어주며 따뜻한 박수를 보내였음.

o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음.

o 이어 둘째 의정《조선소년단 규약 개정에 대하여》가 토의 결정되였음.

o 김정은은 대회에서 연설을 하였음.

- 먼저 사회주의 조국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희망이고 미래인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절 6.6절을 맞으며 전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축복을 담아 열렬한 축하를 보냄.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당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행복을 꽃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을 힘 있게 떨치고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으로 강화발전 시키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됨.

- 백두의 넋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소년단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전도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함.

-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련의 천만 고비를 결사적으로 이겨내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 강국에서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임.

-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이 조국의 만년대계를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명랑하고, 대바르게, 씩씩하게 성장할수록 주체조선의 무진 막강한 힘은 보다 백배해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은 더욱 빨라지게 됨.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지난 기간 학습과 소년단 조직생활, 사회정치 활동과 좋은 일 하기 운동에서 창조된 훌륭한 경험들을 널리 나누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더욱 분발하여야 함.

- 소년단원들은 행복만을 누리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김정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 선렬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귀중히 여기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제 손으로 가꾸어가는 나어린[9] 애국자가 되여야 함.

9) 나어리다 : ①나이가 어리다. ②『북한어』(비유적으로) 생겨난 지 오래지 아니하다.

- 소년단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을 미워하고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원쑤들이 덤벼든다면 항일의 아동단원, 전화의 소년 근위대원들처럼 용감하게 싸울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함.
-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소년단원들을 나라의 보배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모두가 교양자, 학부형이 되여 소년단원들의 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함. 그리하여 모든 소년단원들이 전사회적인 관심과 떠받들림 속에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나도록 하여야 함.
-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풍모와 씩씩하고 명랑한 모습에서 주체혁명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지켜줄 것임.
- 나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 기를 높이 휘날리며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
- 우리의 믿음직한 교대자이며 강대한 우리 조국,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인 소년단원들의 앞길에 행복과 영광이 있으라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6.8, 중통)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未詳), 4.25문화회관

* 참가 : 최룡해, 리일환, 전용남

o 김정은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꿈결에도 소원하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촬영장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음.

o 김정은이 촬영장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는 김정은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음.

o 김정은에게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 대표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었음.

o 김정은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조선소년단을 영원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항일 아동단의 전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동맹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300만 소년단원들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음.

o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이 우리 혁명과 주체적 소년운동 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덕체의 룡마타고 사회주의 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백두산 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김정은을 우러러 목청껏 터치는 참가자들의 격정에 넘친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음.

o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진두지휘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마련해주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여 주체적 소년운동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었으며 오늘은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준 김정은에 대한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음.

o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지는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을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 나갈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맹세를 다지였음.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6.9, 중통)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

o 김정은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 시험발사를 보아주었음.

o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군사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비약해나가고 있는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를 새로 연구 개발하고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o 얼마 전 태양절 경축 열병식 광장을 요란하게 누벼간 다종화된 타격수단들 중의 하나인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는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임.

o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의 전술기술적 제원들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로케트와 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차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용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음.

o 김정은은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의 전술기술적 제원을 료해하고 시험발사를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주었음.

o 발사된 순항 로케트들은 정확하게 선회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에 띄워놓은 목표선을 탐색하여 명중하였음.

o 김정은은 당에서 중시하고 있는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 로케트를 훌륭히 연구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최근에 국방과학 부문에서 초정밀화, 최첨단화된 지상, 해상, 공중 무기체계들을 꽝꽝 개발하여 우리 공화국의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능력을 힘 있게 과시하고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과 결심을 심장으로 지지하고 떨쳐 일어나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6.11, 중방)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未詳), 강서 약수공장(남포)

o 강서 약수공장의 종업원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 안았음.

o 김일성과 김정일의 뜻을 받아 김정은은 강서 약수공장에 한생토록 간직할 사진을 찍어준 데 이어 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은정을 베풀었음.

o 공장의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를 바치는 김정은의 뜻을 받들어 생산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강서 약수가 당의 인민사랑의 샘줄기로 영원히 흐르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음.

▌초·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1, 중방)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未詳), 평양 등

o 김정은이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의 생활을 잘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음.

o 김정은은 우리 당의 뜻을 받들고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의 생활을 잘 도와준 상농광산 종업원들, 중앙검찰소 부원 김순혜, 함경북도 미술창작사 노동자 로창욱, 남포항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류선화, 량강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해주 육아원 노동자 김명주, 대동강구역 편의봉사[10]사업소 노동자 리천숙, 회상 은하 피복공장 지배인 리정희, 함경남도 무역관리국 부원 오태식, 평안북도 지방공업 관리국 산하 단위 소장 김명옥, 희천시 전평동 51인민반 최광철에게 감사를 보냈음.

10) 편의봉사 : 『북한어』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인 봉사. 옷 가공, 이발, 목욕, 세탁, 미용, 각종 소비품의 수리, 숙박, 짐 나르기 따위가 있음.

o 김정은이 보낸 감사를 받은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해갈 열의에 넘쳐있음.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6.20,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 동행 : 황병서, 박봉주, 최태복, 오수용, 안정수, 서홍찬, 조용원, 마원춘

o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o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은 연건축면적 1만 2,720여 ㎡이고 년간 수천만 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 위생도구들을 생산하는 치과 위생용품 종합생산 기지임.

o 김정은은 생산 공정도와 조감도 앞에서 해설을 들은 다음 통합생산 지령실, 치약 생산 공정, 함수약 생산 공정, 치과 위생용품 생산 공정, 분석실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 정형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o 품질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 고장진단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정의 감시 및 자동 조종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하면서 통합 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립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o 사출기, 6색 인쇄기, 제관기, 어깨사출기 등을 거쳐 생산된 치약관들에 원료 배합장에서 진공배합되여 숙성된 치약이 자동 주입되고 봉합된 다음 개별 곽 포장과 지함 포장되어 제품창고로 입고되는 치약 생산 공정이 현대적이라고 하였음.

o 약제와 정수, 향료 등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액 생산 공정과 사출, 성형,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수약병 생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면서 함수액이 담겨진 용기들이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자동적으로 상표가 붙여진 다음 열수축 포장 또는 지함 포장되는 것이 볼만 하다고 말했음.

o 각종 치간실과 솔이 달린 이쑤시개들, 틀이 세척솔, 혀 긁개, 혀 솔 등을 생산하는 치과 위생용품 생산 공정도 아주 잘 꾸려놓았다고 하면서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기뻐했음.

o 태양빛 전지판과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하여 조명도 보장하고 편의시설들에서 더운물을 쓰고 있으며 지열에 의한 랭난방 체계로 실내온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연 에네르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공장이라고 말했음.

o 김정은은 치과 위생용품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이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면서 위생용, 치료용으로 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약과 함수약, 이몸과 이발(이빨)형태에 따르는 치솔을 비롯한 치과 위생용품의 가지 수를 더 많이 늘일 데 대한 문제, 치과 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 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을 잘해 줄 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료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문제, 생산 환경과 생산 공정의 무균화, 무진화, 무인화를 더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최대한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들고 시설물들을 애호 관리할 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주었음.

o 김정은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당에서는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 페부[11]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30, 중방)

o 일시 및 장소 : 미상(未詳)

o 김정은은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음.

- 김정은은 여명거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철도성 청년돌격대 부여단장 한영수,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인민보안원 최영난, 문화성 노동자 전미향, 국가 품질감독위원회 국가 규격제정연구소 연구원 박은옥,

- 남양탄광 차광수 청년돌격대 대장 김철수, 평안남도 먼거리여객 자동차사업소 노동자 문창곤, 평성시 원림사업소 노동자 최은하, 안주 철도화학공장 지배인 박룡범, 회창군 경노동직장 관리위원회 노동자 전영환,

- 회창군 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김경인, 성천군 성천읍 169인민반 리혜숙, 함흥시 성천강구역 인민위원회 부원 리성혁, 사포구역 인민위원회 산하 단위 노동자 조광철, 흥덕구역 도시건설대 노동자 한성호,

- 함주군 함주읍 230인민반 김영순, 단천지구 광업총국 룡천광산 노동자 윤호영, 태천군 인민위원회 산하 단위 소장 김천하,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부원 조금희, 신의주 은하 피복공장 노동자 김철남에게 감사를 보냈음.

o 김정은이 보낸 감사를 받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 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음.

11) 페부 : 『북한어』 '폐부(肺腑)'의 북한어. ※ 폐부 : 마음의 깊은 속.

북한 주요 인사 현지 시찰

▌개 요

o 박봉주 내각 총리, △평안남도 숙천군·문덕군 농사실태 시찰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및 청진 제강소 시찰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과 강원도 내 양묘장, 어구 종합공장 시찰 △강령군·옹진군의 농사실태 시찰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시찰(6.1~30, 중통·중방·노동)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강원도 여러 단위 현지 시찰 △황해남도 재령군 가뭄피해 시찰(6.21.~28, 중통·노동)

▌박봉주 내각 총리 현지 시찰

<평안남도 숙천군·문덕군 농사실태 시찰(6.1, 중통)>

o 6월 1일, 박봉주 내각 총리(이하 '박봉주')는 서해 곡창지대인 숙천군 열두삼천 농장과 문덕군 룡림 협동 농장을 돌아보면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였으며 당의 의도에 맞게 포전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며 과학적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이어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령도 업적 단위들이 기치를 들고나가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 보장을 따라 세울 데 대한 문제들이 강구되었음.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및 청진 제강소 시찰(6.14, 중통)>

o 박봉주는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과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를 위한 공사, 주체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로동계급과 기술자, 일군들을 고무해주고 협의회를 진행하였음.

- 협의회들에서는 김책제철 련합기업소의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데 대하여서와 청진 제강소의 주체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음.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 등 시찰(6.17, 중통)>

o 박봉주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평강 고기가공공장, 애국 소목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있는 922건설 돌격대원들을 고무하였음.

- 현지 협의회에서는 련관 부문들에서 건설공사를 끝내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문제와 기술자, 기능공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축산기지의 정상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o 박봉주는 강원도 양묘장과 어구 종합공장 건설장 등을 돌아보면서 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강령군과 옹진군 농사실태 시찰(6.23, 중통)>

o 박봉주는 강령군 내동 협동농장과 옹진군 읍 협동농장의 가물 피해막이 전투장을 돌아보면서 농업전선에서 가물피해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전투에 떨쳐나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 성, 중앙기관 지원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음.

- 현지 협의회에서는 가물과 고온현상이 지속되는데 맞게 물 원천을 최대로 탐구 리용하며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련관 단위들에서 가물 피해막이 전투에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음.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시찰(6.27, 중통·노동)>

o 6월 27일, 박봉주는 황해북도 황주군 석정 협동농장, 룡천 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가물(가뭄) 피해막이 전투를 힘차게 벌리고 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음.

- 협의회들에서는 영양수를 리용한 효과적인 가물 피해막이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물 원천을 최대로 탐구 리용하는 동시에 성, 중앙기관들에서 피해막이에 필요한 륜전기재[12]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음.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현지 시찰

<강원도의 여러 단위 시찰(6.21, 중통)>

o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하 '최룡해')이 문천 발브공장, 원산 철도차량 련합기업소, 강원도 체육기구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문천 발브공장, 원산 철도차량 련합기업소, 강원도 체육기구공장의 여러 생산 공정을 돌아보면서 최룡해는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주었음.

12) 륜전기재 : 『북한어 기관차, 여객차, 화차, 자동차 따위와 같은 바퀴로 움직이는 운수 기재.

- 현지 협의회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자재와 대상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이에 앞서 최룡해 동지는 2.8비날론 련합기업소를 현지 료해하였음.

<황해남도 재령군 각각 가뭄피해 시찰(6.28, 중통·노동)>

o 6월 28일, 최룡해는 부덕 협동농장과 고산 협동농장에서 례년에 없는 최악의 가물을 이겨내기 위해 련속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는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음.

- 군 안의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가물과의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 나갈 데 대하여서와 관수 설비, 운반수단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우물과 굴포[13]를 효과적으로 리용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13) 굴포 :『북한어』①밀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괴어 있는 웅덩이
②논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만든 보조 수원 시설. 댈 물량이 적은 곳이나 기본 수원(水源)의 물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일정한 규격의 크기로 웅덩이를 파서 만든다.

‘국제 아동절’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진행

▌개 요

o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진행 보도(6.1, 중통·중방·노동)

▌주요 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7. 6. 1(목), 릉라 인민유원지

* 참석자 : 최룡해, 전광호 등과 관계부문 일군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유치원, 평양 애육원을 비롯한 시안의 유치원 어린이들, 보육원, 교양원들, 여성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 여성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

o 장춘실 녀맹 중앙위원장은 온 나라 어린이들이 해님만을 따르는 해바라기들로,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음.

o 바람개비 재주, 꽃줄놀이를 비롯한 즐겁고 유쾌한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무대가 펼쳐졌으며, 이어 체육 유희오락 경기가 진행되었음.

o 경기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춤도 추고 릉라 곱등어[14]관에서 바다 동물들의 재주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

o 각 도, 시, 군들에서도 국제 아동절에 즈음한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음.

14) 곱등어 :『북한어』‘돌고래’의 북한어.

기계공업성 공장·기업소, 상반기 주요 계획 조기 완수

▌개 요

o 기계공업성 아래 20여 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상반기 '공업 총 생산액 계획', '중요 지표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보도(6.8, 노동)

▌주요 내용

o 기계공업성의 해당부서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20여 개 공장, 기업소들이 상반년 총 생산액 계획과 변압기, 전동기, 절연칠감, 견절연직, 각종 발브류, 전력케블, 조작케블 등 중요지표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기계공업성 당 조직에서는 성과 여러 관리국 일군들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오늘의 진군 길에서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화선[15]식 정치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내밀고 있으며 일별·주별 전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중요 지표별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음.

- 자강력 제일주의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생산 돌격전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지난해 충정의 70일 전투기간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대안 중기계련합기업소가 5월 31일까지 상반년 총 생산액 계획을 113.8%로 수행하였음.
- 지난해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평양 326전선 공장도 5월 말까지 상반년 전력케블, 조작케블 생산계획을 각각 149%, 140.7%로 넘쳐 수행하였음
- 안주 절연물 공장은 상반년 절연칠감 생산계획을 121.6%, 견절연직 생산계획을 109.6% 수행하였음.
- 문천 발브 공장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03.1%, 각종 발브류 생산계획을 101.3%로 앞당겨 끝내였으며, 평양 연마석 공장에서도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과 연마석 생산계획을 각각 281.2%, 102.8%로 초과 완수하였음.
- 경성 애자 공장은 5월 말까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17.2%, 상반년 차단기, 단로기, 고압 배전반 생산계획을 121.1%, 102.8%, 218.2%로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음.

15) 화선 : 『북한어』 사격임무를 받은 사수가 차지하고 사격을 진행하는 점들을 련결한 선.

- 함흥 청년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5월 말까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18.9%, 분전함 생산계획을 127.8%로 수행하였음. 성천강 전기공장도 5월 말까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208.7%, 전동기 생산계획을 135.7%로 끝내였으며 대동강 전기 공장에서도 상반년 변압기 생산계획을 100% 수행하는 성과를 안아왔음.

- 만리마 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높은 생산실적으로 빛내일 열의안고 매달 맡겨진 베아링(베어링) 생산계획을 수행한 평양 베아링 공장에서도 5월 말까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24.1%로 앞당겨 끝냈음.

- 희천 정밀기계 공장, 강서 기관부속품 공장, 가담 기계 공장, 만경대 공작기계 공장, 순천 기관 공장, 충성호 뜨락또르 공장들에서도 5월 말까지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각각 158.4%, 152.4%, 168.4%, 135.6%, 250.3%, 140.5%로 완수하였음.

o 기계공업성 아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를 전례 없는 생산실적으로 빛내이고 만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폐막식

▌개 요

o 조선소년단 창립 71주년 맞이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의 폐막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6.8, 중통·노동)

▌주요 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7. 6. 8(목), 과학기술전당

* 참가자 : 청년동맹 일군들, 학생소년들

* 폐막사 :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 비서)

o 조선소년단 창립 71돐을 맞아 2일에 개막되였던《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 작품 및 모형 전시회 - 2017》이 폐막되었음.

o 전시회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의 해빛 밝은 교정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지덕체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 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비상한 탐구정신을 보여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음.

- 전시회에서는 과학환상 소설《절대로 깨지 못 한다》, 과학환상 모형《무토양 순환식 고리형 립체 농장》, 제품 견본《전기를 생산하는 새 형의 도로》를 비롯하여 기발한 착상과 환상능력이 잘 반영된 130여 건의 문예작품들과 전시품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 단체 순위에서는 평양시가 1등을, 평안남도, 함경남도가 2등을,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북도가 3등을 하였음.

o 페막 연설자는 전시회를 통하여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될 소중한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며 탐구의 날과 날을 이어온 학생소년들의 실력이 남김없이 과시 되었다고 말하였음.

- 모든 학생소년들이 소년단원들의 학업성적의 높이이자 앞날의 우리조국의 국력의 높이라고 한 김정은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의 탑을 쌓아 감으로써 강성 조선의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페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와 학생들에게 우승컵과 상장이 수여되었음.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식

▌개 요

o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개막(6.13, 중통)

▌주요 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7. 6. 13(화), 평양 중등학원

o 평양 중등학원에서 진행되는 체육경기에서는 각 도 중등학원 원아들이 참가하여 축구, 배구, 롱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하였음.

- 이날, 평양시 팀과 황해남도 팀 사이의 남자 축구경기, 평양시 팀과 함경북도 팀 사이의 녀자 배구경기가 있었음.

o 경기는 20일까지 진행됨.

‘세계 급혈자의 날’ 행사 등 진행

▌개 요

o △‘세계 급혈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가 진행될 것(6.14~15, 중통)

▌‘세계 급혈자의 날’ 행사 진행(6.14, 중통)

o 일자 및 장소 : 2017. 6. 14(수), 인민문화궁전

* 참석자 : 보건 부문, 련관 단위의 일군들, 자원 급혈자들과 주조(駐朝) 세계 보건기구 림시 대리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조선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단

o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귀중한 혈액을 기증하고 있는 급혈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조선의 수혈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그들은 올해 세계 보건기구가 내놓은 주제에 맞게 급혈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o 참가자들은 록화 편집물을 시청하고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으며 중앙 예술경제 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였음.

o 이날 각 도들에서도 세계 급혈자의 날이 운영되었음.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진행 계획(6.15, 중통)

o 일자 및 장소 : 2017. 6. 22(목) ~ 26(월), 과학기술전당

* 참석자 : 조선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 개 단체들

o 전시회에는 건강식품과 제품, 의약품들, 가정용 의료기구들이 출품되게 될 것임.

- 전시회 기간 기술 토론회와 지적 제품 류통, 전시품 판매 등도 있게 될 것임.

o 조선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의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될 것임.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진행

▌개 요

o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진행(6.18, 중통)

▌주요 내용

* 일자 및 장소 : 2017. 6. 18.(일), 청년중앙회관

* 참석자 : 정현(조선 장애자 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들, 가족들, 시내 근로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o 모임에서는 장애자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음.

- 공연무대에는 혼성 5중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녀성 2중창 《사랑의 빛발》, 무용 《3인무》, 《옹헤야》, 손풍금 독주 《통일 무지개》, 녀성 독창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가야금 독주 《아리랑》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음.

-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김정은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참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주었음.

o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음.

고려약재를 이용한 '치료용 화장품' 선전

▌개 요

o 고려약재를 이용한 '은하수' 상표의 '치료용 화장품' 선전(6.23, 중통)

▌주요 내용

o 평양 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은하수》상표의 치료용 화장품들이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 고려약재 추출 성분을 리용한 이 제품들은 피부 보호나 로화 방지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기존 기능성 화장품과 달리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를 줌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도모해주고 있음.

- 생리적으로 또는 화장품 사용 과정에서 생긴 여드름을 제거해 주는 여드름 치료 크림과 여드름 방지 살결물[16] 그리고 모기에 의한 피부손상을 막고 천연 수림의 청신한 향기를 내는 모기방지 향수, 머리칼 성장액 등 치료용 화장품의 시제품들이 평양시내 봉사망들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음.

o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개성 고려인삼을 비롯한 천연식물을 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널리 개발 리용 되어왔다고 하면서, 치료용 화장품 개발 관계자인 보건성 피부 예방원 의사 박은철은 이렇게 말하였음.

- 치료용 화장품에서 뛰여난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인삼, 정향, 울금, 황경피와 같은 조선의 우수한 고려약재들임.

- 원료 추출액을 거의나 전부 리용하던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치료용 화장품은 고려 약재에서도 유효 성분만을 추출, 분리, 정제하는 새로운 제조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하여 높은 치료효과를 내고 있음.

o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료용 화장품은 10여 종에 달하고 있음.

16) 살결물 :『북한어』'미안수'의 북한어. ※ 미안수 : '로션'.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개 요

o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진행 보도(6.28, 중통)

▌주요 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7. 6. 28.(수), 과학기술전당

* 참석자 : 리원철 조선 우주협회 위원장(이하 ‘리원철’), 조선 우주협회 위원

o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의에서는 《우주 과학기술 토론회-2017》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리원철은 우주개발 사업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수령들의 업적과 김정은의 령도에 의하여 오늘날 인공지구 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말하였음.

- 조선 우주협회가 실용위성을 발사한데 맞게 우주기술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리용하기 위한 우주 과학기술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o 《우주 과학기술 토론회-2017》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토론들과 분과별 과학기술 발표회, 우주 과학기술부문의 성과와 세계적인 발전 동향에 대한 강의, 록화 편집물 시청 등이 진행되었음.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 만화영화 창작

▌개 요

o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만화영화 '소년장수' 등을 창작했다고 보도 (6.28, 중방)

▌주요 내용

o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는 명작 창작열풍이 세차게 일어 번지고 있음.

o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김정은의 뜻에 따라 촬영소는 드높은 창작적 열의를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 올해에 들어와 만화영화 《소년장수》와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의 연속편들을 훌륭히 창작해서 내놓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o 만화영화 창작의 선행 공정을 맡은 문학창작단에서부터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음.

- 창작단의 작가들은 명작, 역작창작의 선두에서, 청소년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과 인민의 감정정서, 생활논리에 맞는 역사물, 상식 주제의 연속편 만화영화 문학들을 특색 있게 창작해서 만화영화 제작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음

- 1·6·9창작단에서는 6월 19일을 맞으며 만화영화 《소년장수》의 7개부와 역사 만화영화 《고주몽》의 3개부를 창작해서 내놓음으로써 촬영소가 상반년 창작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데 이바지하였음.

o 촬영소에서는 만화영화 제작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새 기술 발표회, 과학기술 강의를 통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기량 및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어 제작 속도를 종전에 비해서 1.5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음.

- 자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해서 2차원 만화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우리식으로 연구개발했으며 3차원 만화영화 제작에서 제기되는 원도, 동화 자동 프로그람과 특수효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새로 창작하는 만화영화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 사상 전선의 믿음직한 기수, 전초병답게 만리마 선구자대회를 맞으며 명작 폭포를 안아오기 위한 창작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대남동향

「민화협」 대변인 담화

▌개 요

o 박 前 대통령 재판 관련 보수세력 비난(6.2, 중통·중방·평방)

o 우리 정부에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책임 전가 및 '대북정책 전환' 촉구(6.15, 중통·중방)

o '극우 보수단체들의 재결집 움직임' 비난 및 '반보수 투쟁' 선동(6.30, 중통·중방)

▌주요 내용(6.2, 중통·중방·평방)

o 지금 특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되여 감옥에 끌려간 박OO 역도가 재판정에 끌려나와 자기의 죄악을 전면부정하며 오만무례하게 놀아대여 만 사람을 아연케 하고 있음.

o 세상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OO년이 청와대 안방에 똬리를 틀고 앉아 친미사대와 파쇼 독재, 동족 대결의 독을 내뿜으며 저지른 온갖 악행들은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만고죄악으로서 사실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즉결 처형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여 있음.

o 그런데 천하의 저능아인 박OO는 쇠고랑을 차고 재판정에 나선 지금까지도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각 계 각 층이 몇 달 동안이나 광장과 거리들을 메우며 분노의 초불을 활활 태웠으며 제 년이 끝끝내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방 안에 처박히게 되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빙충맞게 놀아대고 있음.

o 문제는 박OO 역도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추태가 제 년의 범죄를 한사코 비호두둔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 보수패당을 믿고 해대는 짓이라는데 있음.

o 지금까지 박OO에게 들어붙어 턱찌끼를 얻어먹으며 기생하던 괴뢰 보수패당은 저들의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자 곧 공범집단인 저들에 대한 심판으로 된다는 데로부터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 역도년에게 들씌워질 중형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

o 제반 사태는 박OO 역도의 죄악을 엄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초불로 밝힌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추악한 범죄자 무리에게 즉시 극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빚어진 박OO 역도와 년을 싸고도는 보수 페물(폐물)들은 필경 죽을 때까지 악취를 풍기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구역질만 자아내게 할 것임.

o 온 겨레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살 구멍을 찾아보려고 발악하는 박OO 역도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민족 반역 무리들이 무덤 속에서 다시 헤여나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매장해버리고 정의와 진리의 새 력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

▌주요 내용(6.15, 중통·중방)

o 알려진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을 맞으며 진행하기로 하였던 북과 남, 해외의 민족 공동행사가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로 하여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음.

o 이번 민족 공동행사에 어떻게 림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현 집권 당국의 립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음.

o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처음부터 《한미 정상회담 전 6.15 공동행사 개최는 부담스럽다.》느니,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검토하겠다.》느니 하는 등으로 시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면서 여기에 손발을 잠그려 하지 않았음.

o 보수 패거리들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도발》이니, 《고립》이니, 《제재와 압박을 통한 단호한 대응》이니 하는 대결망발들이 현 당국자들의 입에서 거리낌 없이 튀여나왔음.

o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6.15공동선언 17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북측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였다.》느니, 《북측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방문과 관련한 초청장이나 신변 안전보장 각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느니 하고 구차스럽게 변명하다 못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였다. 문제는 북 때문이였다.》는 당치않은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음.

o 이것이 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그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여론을 오도한 박OO 괴뢰 보수패당의 추악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o 더우기 문제로 되는 것은 주대 없이 미국과 보수 세력의 눈치만 살피는 가련한 처지에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남조선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임.

o 명백히 하건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 자주정신,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결정체임.

o 북남선언 리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민간교류나 허용해준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님.

o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북남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집권 전 기간 변변한 대화 한 번 못해보고 내외의 비난과 저주만을 받은 보수《정권》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밟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음.

o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남조선 당국이 선차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며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인 동족대결 죄악을 단호히 심판할 용단부터 내리는 것임.

o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저들의 립장과 태도를 온 민족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주요 내용(6.30, 중통·중방)

o 최근 남조선에서 천하악녀인 박OO 역도의 파멸과 함께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극우 보수단체들에 대한 각 계층의 저주와 배척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o 알려진 바와 같이 박OO 역도의 집권 시기 극우 보수단체들은 권력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역적패당의 반역정책을 정당화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며 무지막지한 깡패 짓도 서슴지 않았음.

o 특히 극우 보수단체들은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친북 좌파 척결》소동에 광분하는 등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일으키는 데서도 누구보다 박OO 역도의 손발이 되여 역적질을 일삼음.

o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온갖 란동을 일삼던 극우 보수단체들이 지금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 적폐(적폐) 청산 대상이 되여 해체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함.

o 극우 보수단체들이 기울어져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겠다고 《보수의 재결집》이니,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니 뭐니 하며 그 무슨 《재생》과 《복귀》에 대해 개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산송장들의 가소로운 망녕에 지나지 않음.

o 내외의 경악을 자아낸 특대형 범죄사건의 주모자들인 박OO, 최OO 일당뿐 아니라 극우 보수단체들의 추악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행적과 죄악의 진상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함.

o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극우 보수 떨거지들이 다시는 독버섯처럼 돋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리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임.

「민화협」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지지 비난(6.8, 중통)

o 웜비어 사망 관련 우리 정부의 '억류국민 송환 요구' 비난 및 "우리(北) 주민(집단 탈북 女종업원·김련희 등) 송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6.23, 중통·평방)

▌주요 내용(6.8, 중통)

o 민족 화해 협의회 대변인은 8일 남조선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조작된 대조선 《제재결의》를 지지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우리가 자위적 군력 강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동원하여 《제재결의》요, 《성명》이요 하는 물건짝들을 람발하면서 악을 써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상투적인 광기임.

- 최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우리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케트 《화성-12》형 시험 발사와 련이어 진행된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를 걸고드는 대조선 《제재결의》 2356호가 조작된 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됨.

o 그런데 지금 남조선 당국은 이러한 날강도적인 《결의》를 무턱대고 지지한다 어쩐다 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음.

-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외교부 대변인이요 뭐요 하는 자들을 내세워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의 《결의》를 《북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결의》를 충실히 리행하면서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음.

o 사실 지금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였다고 하나 괴뢰 보수패당의 집권 때와 같은 구태의연한 대결소동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o 한편으로는 《대화》니, 《접촉》이니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동족의 생존권을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상전과 입을 맞추며 돌아치는 것은 동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됨.

o 그가 누구든 력사의 페기품(폐기품)으로 선고받은 력대 보수패당의 반민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되풀이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파멸당한 박OO

역적무리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

o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미국과 그 졸개들이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뢰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 침략자, 도발자들의 정수리에 철퇴를 안기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높이 떨치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임.

o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제재》 합창을 하며 동족압살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걷어치우고 우리 민족 끼리 정신으로 돌아서야 할 것임.

▌주요 내용(6.23, 중통·평방)

o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23일 남조선에서 미국인 왐비어 문제를 걸고 그 무슨 《억류자 송환》을 떠들어대는 반공화국 광대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한 죄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교화 중이던 미국인 왐비어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미국에 송환되여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을 걸고 광란적인 대결소동이 벌어지고 있음.

o 우리 해당 기관들은 공화국에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철저히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대우해주고 있으며 왐비어도 마찬가지임.

o 이에 대해서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죄로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고 교화를 받다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미국에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o 우리가 왐비어를 어떻게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주었는지 쥐뿔도 모르는 자들이 《가혹행위》니, 《고문》이니 하는 악설을 짖어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상전인 미국에 더 잘 보이려는 친미노복들의 본능적인 추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o 괴뢰들이 왐비어 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다가 체포되여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송환》을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음.

o 형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을 운운하는 것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임.

o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려》요, 《송환》이요 하는 괴뢰들이 그렇게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백주에 집단 유인랍치해간 12명의 우리 녀성 공민들과 김련희 녀성부터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

o 그럼에도 남조선 당국은 박OO 역적패당과 다름없이 《현행법상 그들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느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착의사를 확인했다.》느니 뭐니 하고 생떼를 쓰며 그들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갖은 박해와 악행을 가하고 있음.

o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인도주의》니, 《리산가족》이니 하는 떠벌임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

o 우리가 루차(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남 간의 일체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

o 다시금 경고하건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일에 주제넘게 간참하며[17] 입방아를 찧는 친미 노예적 근성과 악습을 버려야 함.

o 남조선 당국은 도적이 제 발 저린 격으로 아무리 《억류》니, 《송환》이니 하는 허튼 소리를 해대도 저들의 반인륜적인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부당하게 강제로 억류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모든 우리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임.

17) 간참하다 : 『북한어』 '참견하다'의 북한어.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집단탈북 女종업원 12명과 김련희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며, "송환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6.9,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남조선에서 박OO 역적패당의 악랄한 동족대결 책동의 적폐(적폐)를 청산할 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에 강제 억류되여 있는 김련희 녀성과 12명의 우리 녀성 공민들의 송환을 위한 각 계층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o 그러나 각 계층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강제억류하고 있는 우리 녀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와 여야당들도 이를 외면하고 그 무슨 《8.15 남북 리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놀음을 벌리였음.

o 지어 통일부 당국자라는 자는 8일 우리 녀성 공민들의 송환문제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른 탈북》을 운운하며 《리산가족 상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황당한 궤변을 또다시 늘어놓았음.

o 우리 녀성 공민들이 유인랍치되여 남조선에 강제 억류되여 있는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OO 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책동이 빚어낸 산물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임.

o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리산가족》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혈육들과 생리별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피타는 절규를 들어야 하며 우리 녀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부터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함.

o 우리 녀성 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음.

o 남조선 당국은 부당하게 억류되여 있는 우리 녀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하며 박OO 역적패당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감행한 우리 녀성 공민들에 대한 집단랍치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함.

o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남조선에 강제 억류되여 있는 우리 녀성 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보수 세력, 미국, 우리 정부 반응 비난 및 '사드 배치 철회 투쟁' 선동(6.10,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 호전광들이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에 끌어들인 《싸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를 추가로 반입해놓고도 숨겨온 사실이 폭로되여 사회 각 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o 괴뢰 군부 패거리들이 《싸드》 추가반입 사실을 숨겨보려는 것은 《싸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남조선 민심의 분노와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피하고 미국 상전의 환심을 얻어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친미역적 행위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싸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라겠는데 오히려 그것을 문제시 하는 것은 종북 좌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안보문제가 정치 쟁점화, 론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싸드와 관련해 더 이상의 론난을 자초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고아대면서 매국행위를 적극 비호 두둔해 나서고 있음.

o 더욱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미국이 저들의 불법, 비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싸드》를 당장 제 땅으로 끌어내갈 대신 오히려 《미국과 거리를 두자는 것》인가고 을러메면서 남조선 당국에 《싸드》 배치를 강박하고 있는 것임.

o 문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쎄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느니, 《리해해 달라.》느니 하며 상전의 눈치를 보며 구차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임.

o 알려진 바와 같이 《싸드》의 남조선 배치는 남녘땅을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려고 친미 보수패당이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행위이며 그 전 과정이 불법과 기만, 독단과 전횡으로 강행된 박OO 《정권》의 악폐(악폐) 중의 악폐임.

o 그런데도 남조선 당국이 《싸드 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싸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싸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음

o 《초불(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은 초불민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친미에 환장하여 민족반역의 치욕스러운 자취만을 남긴 박OO 패당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 각계가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규탄하고 있는 김OO과 한OO를 비롯하여 《싸드》를 끌어들인 자들을 당장 극형에 처해야 함.

o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초불투쟁의 그 의지, 그 기세로 친미 보수 패거리들의 매국배족 망동을 짓부시고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임.

「미군 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개 요

o '신효순·심미선 양 사건'(2002.6.13.) 15주기 즈음, 미국 비난 및 반미 투쟁 선동(6.12, 중통·중방)

o '의정부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6.17, 중통·중방·평방)

▌주요 내용(6.12, 중통·중방)

o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이 감행한 두 녀중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미 초불(촛불)시위가 세차게 타 번지고 살인마들에 대한 내외의 커다란 저주와 격분을 불러일으켰던 때로부터 어언 15년이 되였음.

o 그때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제는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남조선에서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음.

o 최근 미제는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핵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

o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민족 멸살도 서슴지 않는 미제에 의해 오늘 조선반도는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음.

o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남조선 인민들의 《우방》이나 《보호자》가 아니라 침략자, 살인자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o 남조선 인민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쫓고 참다운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함.

o 남조선 인민들은 천하의 친미역적인 박OO 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 기생하는 추악한 매국역적무리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그 어떤 친미 추종행위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견결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함.

o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재앙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외세가 없는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 말 것임.

▌주요 내용(6.17, 중통·중방·평방)

o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친미 보수패당이 벌리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2사단 창설 100주년《기념식》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를 종미근성, 사대굴종 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찬 민족 반역행위로, 자주를 지향하는 력사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조선을 강점하고 살인과 략탈, 절도와 강간 등 온갖 범죄를 감행해온 날강도 무리, 야수집단임.

o 불평등한《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치외법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양키들의 날강도 행위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당한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 분자들이《52년간의 우정》이요,《환송》이요 하면서 미군 살인악당들을 위한《축하공연》놀음을 벌리고 여기에 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민족적 의분도, 수치도 느낄 줄 모르는 용납 못할 역적행위임.

o 미제 침략군 깡패들이 돌아치며 폭행과 살인, 강탈을 마구 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할 데가 없는 곳이 남조선이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여 있는 탄저균과 페스트균, 지카 비루스까지 끌어들여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자들이 바로 친미 보수패당임.

o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고 친미로 연명하는 매국노 무리가 살판치는 한 남녘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 재난은 끝없이 계속될 것임.

o 이러한 치욕과 수난을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는 길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데 있음.

o 남조선의 각 계층은《혈맹》과《우방》을 떠들고 있는 미국의 흉악무도한 침략적 정체와 야수적 본성을 똑바로 보고 미제 침략군을 내쫓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하며 쓸개 빠진 친미 보수패당이 벌리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2사단 창설 100주년《기념식》놀음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함.

o 외세가 없고 매국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을 위해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친미 보수패당들을 쓸어버리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

「조평통」 성명

▌개 요

o 6.15공동선언 17주년 즈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적 입장(△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천명 및 '대북정책 전환' 압박(6.14, 중통·중방·평방)

▌주요 내용

o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곡절 많은 투쟁사에 획기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던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을 깊은 감회 속에 맞이하고 있음.

o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 발전을 절절히 념원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극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오늘 내외의 관심은 북남 당국의 새로운 결단과 선택에 쏠리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7돐에 즈음하여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안아올 확고한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적 립장을 다시금 천명함.

1. 이 땅에 태를 묻은[18]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 성업에 헌신하려는 투철한 립장을 가져야 함.

   -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성해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민족 분렬의 장구한 력사가 남긴 뼈저린 교훈임.

   - 하지만 남조선의 새 당국자들은 이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집권 첫날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벌써부터 북남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놓고 있음.

   - 큰 나라들에 무턱대고 굽신거리며 《특사 외교》니, 《전화 외교》니 하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는가 하면 《한미동맹 강화》를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목숨이 간들거리는 백악관 주인을 찾아가 눈도장이나 찍을 구차스러운 행각준비에 만사를 제쳐놓고 허둥대고 있음.

18) 태를 묻다 : 『북한어』 '태'는 '태반'을 의미하며, '태를 묻다'는 '태어나다'를 형상적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오늘날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통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그 어떤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의 손에 확고히 쥐여져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함.

- 남조선 당국은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우리 민족끼리냐《한미동맹》이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옳바른 결심을 내려야 하며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와 통일문제 해결의 전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2. 남조선 당국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일 때 통일의 길이 열리고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 통일 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대업임.

   -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응당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부터 털어버려야 하며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려정에 들어서야 함.

   - 그러나 현 남조선 당국은 보수《정권》시기 그어놓은 동족대결의《붉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의연히《북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느니,《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겠다.》느니 하고 떠드는 한편 보수패당이 추구해온《북 체제 붕괴》의 간악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우려먹을 불순한 속심도 꺼리낌 없이 내비치고 있음.

   - 동족대결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통채로 받아문 매국 배족적 처사이며 제재와 압박은 반공화국 적대의 집중적인 표현임.

   - 따라서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그 무슨《병행》에 대하여 떠들며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기만임.

   -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겠다면, 지금처럼 동족을 겨냥한 대결과 적대의 주먹을 굳이 펴지 않겠다면 우리 역시 강요할 생각이 없음.

   - 체제대결의 끝은 물리적 충돌이며 부득불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임.

3.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힘.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이는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임.

- 문제는 임기 내에 조선반도 평화의《획기적 전기》를 만들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현 남조선 당국자들이 동족의 핵무력 강화조치를 계속 걸고들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침략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임.

- 현 사태를 보면 남조선 집권자가 떠드는《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은 고사하고 핵전쟁의 재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임.

- 우리는 평화를 누구보다 원하고 온 겨레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정의의 핵보검으로 침략자들을 그 아성까지 초토화해버릴 모든 준비가 되여 있음.

-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조선반도 평화의 가장 공고하고 현실적인 담보인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을 무지하게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나가야 함.

- 특히 서해 열점지역에서 불법무법의《북방 한계선》을 고수하겠다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임.

o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대담하게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감으로써 민족사에 긍지로운 자욱을 남기느냐 아니면 외세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망설이다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느냐 하는 운명적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o 당당한 핵 강국, 로케트 맹주국의 확고한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함.

o 우리는 이 기회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때를 놓침이 없이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함.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성명

▌개 요

o 우리 언론의 '북한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보도 관련 비난 및 위협(6.16, 중통)

▌주요 내용

o 지난 6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음.

o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 보수언론들은 감히 우리 당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정치를 시비하고 헐뜯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려대여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음.

o 《KBS》, 《MBN》, 《련합뉴스》를 비롯한 괴뢰 보수언론들은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대해 《체제 유지용 전시성 행사》니 뭐니 하며 악담들을 줴치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중상 모독해 나섰음.

o 그야말로 대결에 환장하여 인간적인 것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천하 무뢰한들, 신성한 언론의 탈을 쓴 쓰레기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악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음.

o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어린이들의 왕국이다, 아이들의 밝고 담찬 모습이야말로 조선의 진짜 국력이며 창창한 미래라고 한결같이 격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

o 하지만 유독 남조선의 괴뢰 보수패당과 그 시녀노릇을 하는 보수 매문가[19]들만은 이러한 눈부신 현실을 한사코 부정하며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고 먹칠을 하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음.

o 이것은 어린이들까지 반공화국 모략 소동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발악하는 괴뢰 보수패당과 보수 매문가들의 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는 괴뢰 보수언론들과 기자 나부랭이들에게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왜곡) 날조하며 반공화국 모략나발을 불어댄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명백히 경고하였음.

o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정치를 감히 헐뜯어댄 괴뢰 보수언론기관들과 쓰레기 매문가들, 그것을 조직하고 부추긴 자들은 지금 이 시각부터 분분초초 항시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19) 매문가: 돈을 벌기 위하여 실속 없는 글을 써서 파는 사람.

o 남조선 당국도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괴뢰 보수언론들의 반공화국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

o 만일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치 떨리는 범죄행위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해 철저히 계산할 것임.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日 아베 총리 특사(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언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 촉구 및 '반일 투쟁' 선동(6.16,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일본 수상 아베의 특사로 남조선을 행각한 자민당 간사장 니까이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모독하고 위협 공갈하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늘어놓아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o 지난 10일 남조선의 지방을 싸다니던 니까이는 동행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살기띤 표독스러운 낯짝을 해가지고《하찮은 것들로 티각태각하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고 지껄이면서《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한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견하면 박멸해 달라.》고 줴쳐댔음.

o 이 자의 망발은 박OO 패당이 일본과 체결한 굴욕적인 성노예 문제《합의》를 폐기(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겨냥한 오만무례한 망발로서 일제의 과거죄악을 철저히 청산하려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공공연한 도발임.

o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일본 반동들의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추태에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한일 간의 협력》과《미래 지향적》이라는 따위의 소리를 늘어놓으며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임.

o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합의》의《존중》이니,《리행》이니 하며 돌아친 박OO 패당의 친일 역적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서 일본 반동들의 오만방자한 망동에 부채질을 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친일 굴종 행위임.

o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의 요구에 배치되게 굴욕적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합의》를 철회하지 않고 비굴한 대일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더 큰 대외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임.

o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오만무례한 망동을 추호도 용납치 말고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친일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임.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관련 비난 및 '반미 투쟁' 선동(6.18, 중통·평방)

▌주요 내용

o 최근 미국이 괴뢰 군부 호전광들과 작당하여 추진한 《싸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탄로되고 《싸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다시 진행되게 되는데 불만을 품고 남조선 당국을 다그어대며[20] 로골적으로 《싸드》 배치를 강박하고 있음.

o 결국 지금 남조선 당국은 《싸드》 배치를 받아들이라고 닥달질(닦달질)하는 미국과 그에 편승한 친미 보수패당의 압력에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회 각 계와 주변나라들의 압박까지 겹쳐 2중 3중의 시달림을 받고 있음.

o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건대 《싸드》 배치는 미국과 괴뢰 보수패당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남조선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세계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미싸일 방위체계의 전초 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이 강행되는 경우 남조선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 시한탄을 품은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여 있음.

o 더우기 《싸드》는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동 과정에 나오는 가스와 강력한 전자기파, 발동기 굉음 등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생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쟁괴물로서 남조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우환단지에 불과함.

o 그러나 미국은 괴뢰 군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김OO, 한OO와 같은 친미 주구들을 사촉하여 꼭두새벽에 도적고양이처럼 《싸드》 발사대 2기를 성주 골프장으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4기를 추가로 반입해놓고도 내외여론의 비난과 항의가 두려워 그것을 철저히 은페(은폐)시켜왔음.

o 뿐만 아니라 《싸드》 부지면적이 작을수록 환경영향 평가를 어물쩍 해버릴 수 있다는 타산 밑에 그 면적을 본래보다 대폭 축소하는 속임수까지 쓰면서 어떻게 하나 올해 중에 《싸드》 배치를 마무리하려고 획책하였음.

o 하지만 이번에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하고도 숨겨온 사실과 부지면적까지 날조한 사실이 폭로되여 미국의 비렬한 흉계는 통할 수 없게 되였음.

---

20) 다그어대다 : 『북한어』 빨리 서둘거나 세게 다그다.
※ 다그다 : 【…을】 ①시간이나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기다. ②어떤 일을 서두르다.

o 사태가 이쯤 되였으면 미국은 불법, 비법 행위로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우롱한데 대해 골백번 사죄하는 것이 마땅함.

o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행악질까지 해대며 남조선 당국에 《싸드》 배치를 강박하는 오만무례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임.

o 이것은 남조선을 한갖(한갓) 식민지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날강도적 본성의 뚜렷한 발로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기가 죽어 《미국과의 싸드 배치 합의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니 뭐니 하는 얼빠진 나발을 불어대며 비굴하게 놀아대고 있음.

o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초불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싸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 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임.

o 만약 남조선 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싸드》 배치를 허용한다면 미국의 《싸드》를 운명의 호신부처럼 어루쓸며[21] 그 배치에 앞장서 날뛰다가 력사의 무덤 속에 처박힌 박OO 역적패당과 같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력사와 민족의 버림과 배척을 받게 될 것임.

o 미국은 《싸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는 남조선의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핵 재앙 단지를 지체 없이 제 소굴로 끌어내가야 함.

o 남조선 인민들은 세기를 이어가며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싸드》를 비롯한 핵전쟁 장비들과 함께 신성한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반미성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임.

21) 어루쓸다 : 『북한어』 '어루만지다'의 북한어.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文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17주년 축사' 등 대북 발언 비난 및 '정책전환' 촉구 (6.21, 중통)

▌주요 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대변인은 현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걸고들며 입부리를 되는대로 놀려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현 남조선 당국자가 집권 후 북남합의 리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떠들면서도 때 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음.

- 특히 지난 《대선》 때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력설하면서 내들었던 공약과는 상반되게 공식 및 비공식 석상에서 《북이 도발로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다.》,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로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를 걸고드는 못된 소리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음.

-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북의 핵과 미싸일 개발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느니,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촉구하면서도 핵과 미싸일 고도화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느니 하며 터무니없이 시비질하였음.

o 지금 남조선 당국은 집권 시작부터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몰려 있음.

- 미국과 수구 보수패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초불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남조선 현 집권자의 난감한 처지임.

o 남조선 집권자는 우리를 걸고드는 비렬한 추태로 체면을 유지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더욱더 사면초가의 신세에 몰아넣는 자멸행위로 될 뿐임.

o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미국과 괴뢰 보수패당의 범죄적 책동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 강화 조치를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있는 것임.

o 더우기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도발자》로 매도하고 《국제적인 제재 압박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으며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민족과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음.

o 남조선 당국자는 상대를 자극하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언동을 그만두고 북남관계에 림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함.

o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과 초불민심의 편에 서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민족사에 떳떳한 자욱을 남기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다가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책임적인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임.

「조선 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보안법 철폐' 및 '통일 애국 인사 석방' 촉구(6.22, 중통)

▌주요 내용

o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결시대의 악법이 활개치며 민주와 진리를 교살하는 살풍경이 펼쳐지고 있음.

o 얼마 전 남조선 사법당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인터네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을 찬양하는 글을 싣고 련북통일을 주장한 한 주민을 악명 높은 《보안법》 위반에 걸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 그 대표적 실례임.

o 남조선 당국의 탄압만행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범죄시하고 가혹하게 처형하던 리명박, 박OO 패당의 광기어린 《종북 척결》 소동 때를 방불케 하고 있음.

o 현 남조선 당국이 초불민심을 대변한 《정권》이라면 마땅히 박OO《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통일 애국 인사들, 무고한 량심수들에게 들씌워진 온갖 죄 아닌 죄를 전면 무효화하고 그들부터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옳을 것임.

o 그런데 이러한 용단을 내릴 대신 오히려 박OO 《정권》의 상속자처럼 《보안법》의 칼날을 잡고 역적패당이 잡아가둔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행위가 아닐 수 없음.

o 더우기 앞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을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련북통일 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광기어린 탄압에 매달리는 남조선 당국의 안팎이 다른 행태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보수 패당들처럼 동족대결로 질주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나 다를 바 없음.

o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OO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구시대의 악법인 저주로운 《보안법》을 철페(철폐)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 처형한 통일 애국 인사들을 즉시 석방해야 함.

o 만일 남조선 당국이 시대와 민심의 흐름에 역행하여 정의와 진리에 칼질하는 무분별한 반민족적 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

「민화협」 공개 질문장

▌개 요

o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태도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관련 '9개항 질문' 제시 및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해 '책임적 결단' 촉구(6.24,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다가 끝끝내 참혹한 재앙을 불러오는가 하는 운명적인 시각에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결단을 내려야 함.

o 동족사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통일번영을 지향해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민족화해협의회는 북남관계의 극적인 전환과 자주통일을 열망하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 당국에 물음.

1.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가.
2.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되는 요인인 남조선 미국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3.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 중상을 무조건 중단할 용의가 있는가.
4.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부터 취하자는 우리의 립장에 호응해 나설 수 있는가.
5. 《북핵문제》에 대하여 떠들어댐이 없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여 있는가.
6.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
7. 보수 역적패당이 저지른 북남관계 전면파탄 책동의 파국적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8. 괴뢰 보수패당에 의해 강제랍치 되여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 관계 개선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9. 민족대회합 개최를 위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노력에 적극 합세해 나설 수 있는가.

- o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구현하여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 나가는 주역이 되겠는가 아니면 거족적인 통일 대진군 흐름에서 밀려나 민족의 버림을 받겠는가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은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o 남조선 당국은 북과 남, 해외가 자기들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온 민족의 의지를 담은 우리의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하여야 함.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

▌개 요

o 한미 정보당국의 '김정은 테러 시도'를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위협 및 우리 정부에 '관련자들의 북한 인도' 요구(6.28, 중방·중통)

▌주요 내용

o 력사의 그 어떤 돌풍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질풍노도 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에 혼비백산한 적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o 최근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행위가 련이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

o 얼마 전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 것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 물질에 의한 국가 테로를 감행할 목적 밑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로 범죄 일당이 적발된데 이어 천하악귀 박OO년이 집권기간 괴뢰 국정원 것들과 작당하여 《북 지도부 제거》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서리발 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를 감행하는 극히 엄중한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노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자들인 박OO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OO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함.
2. 남조선 당국은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행위를 감행한 박OO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OO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함.
3.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로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형한다는 것을 선고함.

o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은 이 하늘 아래서 살아 숨 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함.

o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 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음.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文 대통령의 '현무-2' 시험발사 참관 시 대북발언 및 '2017년 통일훈련' 비난 (6.29,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북 도발 위협》을 떠들며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최근 괴뢰 군 호전광들은 미제 침략군과 함께 남조선과 미국본토에서 우리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련합훈련을 감행한데 이어 6.25를 계기로 《2017년 통일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는 등 도발적인 북침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음.

o 특히 남조선 집권자는 23일 우리를 겨냥한 탄도 미싸일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 미싸일 도발 고도화》니,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느니 하고 력설하였으며 이에 대해 괴뢰당국과 보수언론들은 《대북 경고 메쎄지》라고 떠들어대고 있음.

o 이것은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미국의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임.

o 남조선의 현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며 력대 독재 《정권》들처럼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o 외세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도발》로 걸고들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침략전쟁 연습, 동족을 겨냥한 탄도 미싸일 발사 놀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족의 근본 리익을 외면하고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는 쓸개 빠진 망동임.

o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민족의 주적인 미국에 아부추종하고 보수 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군사적 대결 망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지고 북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부터 해소할 데 대한 우리의 애국 애족적 호소에 호응해나서야 함.

o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경고와 충고를 새겨듣고 선택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강제 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집단탈북 여자 종업원 및 탈북민 김련희 송환' 촉구(6.29, 중통·평방)

▌주요 내용

o 남조선 당국은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김련희 녀성과 집단랍치된 12명의 녀성 공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 하여 정착하였다.》느니, 《현행법상 북송할 근거가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공민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억류를 정당화하고 있음.

o 이것은 우리 공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강력히 주장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에 제동을 걸고 내외여론을 기만하며 보수 역적패당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의 진상을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려는 뻔뻔스러운 궤변임.

o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공민들에 대해 그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 정착한 국민》이라는 모자를 씌워놓고 《북송할 근거가 없다.》고 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임.

o 만일 남조선 당국이 실지로 《본인의사를 존중》한다면 김련희와 12명의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공민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임.

o 우리 공민들에 대한 부당한 강제 억류행위는 박OO 역적패당의 극악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반인도주의적 만행이며 국제 인권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인권 범죄임.

o 남조선 당국은 백주에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혈육들을 생리별시킨 보수패당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호두둔하면서 《리산가족 상봉》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추태를 걷어치우고 유인랍치한 우리 공민들부터 무조건 송환하여야 함.

대외동향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 합동훈련(5.31.)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비난 및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 결사전은 계속될 것' 강조(6.1,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미국이 《칼빈손》호, 《로날드 레간》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동해에 들이밀어 합동훈련을 벌려놓는 것과 함께 유사시에 투입될 핵전략 자산들을 현대화하는데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음.

- 며칠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 공격을 막기 위한 장거리 미싸일 요격훈련이라는 것까지 벌려놓았음.

o 이것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o 문제는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북 정권교체도 침략도 하지 않으며 체제도 보장하겠다.》, 《북과의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다.》는 구차스러운 넉두리(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이러한 군사력 강화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임.

- 앞에서는 《평화》를 떠들어대고 그 막 뒤에서 침략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기회만을 노리는 미국의 교활한 정체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음.

o 미국의 한두 마디의 요설에 긴장을 풀고 무장해제당할 우리가 아니며 음흉한 술수에 넘어가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길에서 물러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님.

o 적들이 그 어디로 침범해오든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고도로 과학화, 첨단화된 것이 바로 우리의 핵공격능력임.

o 미국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승산 없는 군사적 대결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끝까지 괴롭혀줄 용의가 있으며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임.

o 미 제국주의를 괴멸시키고 그 추종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식의 주체무기, 원쑤들을 전률케 할 절대병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 결사전은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될 것임.

o 미국은 시간도 정의도 최후승리도 핵 보검을 틀어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체면이 더 구겨지기 전에 이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 요

o '미국 독자제재(6.1.)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6.2.)'은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을 노린 적대행위'라고 전면 배격 및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역설(6.4, 중통)

o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對쿠바정책' 관련 비난 △웜비어 사망 관련 '북한 고문·구타說'에 대한 배격 및 미국 비난(6.22~23, 중통·중방)

▌주요 내용(6.4, 중통)

o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터쳐 올린 승리의 포성에 당황망조한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 제재압박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여달리고 있음.

o 3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핵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탄도 로케트 발사를 걸고드는 《제재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음.

- 미국이 중국과 오래동안 《협의》하여 만들어냈다는 이번 《결의》는 우리의 핵 및 로케트 계획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가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책동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무장해제 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함.

o 두 개 나라가 뒤골방에서 꾸며낸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총의》로 포장하여 내리먹이는 것은 국제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강권과 전횡의 적라라(적나라)한 표현으로 됨.

o 그들이 이번에 그 무슨 대화타령도 늘어놓았지만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음.

o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 어떤 제재압박을 가해오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나갈 것임.

o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방도를 깨닫고 옳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뢰성은 세계를 진감시키며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오를 것임.

▌주요 내용(6.22, 중통·중방)

o 얼마 전 꾸바 혁명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꾸바의 내부 전복과 경제 봉쇄를 추구하는 새로운 대꾸바 정책을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o 미국의 새로운 대꾸바 정책은 본질상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보장의 간판 밑에 꾸바 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꾸바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이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함.

o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기 체결된 모든 《잘못된》 협정들을 파기한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님.

o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전복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으며 국제적 합의와 공약도 꺼리낌 없이 뒤집군 하였음.

o 1994년 클린톤 집권 시기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을 부쉬 행정부가 뒤집어엎었고 오바마 집권 시기 비준한 빠리협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뒤집어엎은 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됨.

o 자주적이고 반미적인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고립봉쇄하고 전복하며 미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려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날뛰는 것은 미국 고유의 제국주의적 특성임.

o 오늘의 정세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

o 우리는 앞으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꾸바 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낼 것이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

▌주요 내용(6.23, 중통·중방)

o 왐비어는 명백히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단체의 임무를 받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2016년 3월 16일 공화국법에 따라 로동교화형을 언도받은 범죄자임.

o 세상에 공개된 바와 같이 왐비어는 2016년 2월 29일 기자회견 시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단체인 우애련합 감리교회와 미 중앙정보국의 조종을 받는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학 Z협회로부터 임무를 받고 미 행정부의 묵인 하에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였음.

o 이런 적대국의 범죄자에게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할 하등의 리유도 없지만 우리는 그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주었음.

o 미국 내에서 왐비어가 사망한 것이 로동교화 중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무근한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서는 왐비어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의사들이 할 말이 있을 것임.

o 그들은 왐비어를 진찰하고 우리 의사들과 왐비어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교환하였으며 왐비어의 맥박과 체온, 호흡 그리고 심장 및 페검사 결과 등 생명지표가 정상이라는데 대하여서와 우리가 심장이 거의 멎었던 왐비어를 살려내여 치료해준데 대하여 인정하였음.

o 왐비어가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1주일도 못되여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임.

o 그렇게 미국민의 안녕에 대해 관심한다는 미국정부가 어찌하여 오바마 행정부시기 왐비어의 인도주의적 석방문제를 단 한번도 우리에게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는지 그 대답은 미국 자신이 해야 할 것임.

o 우리는 왐비어가 비록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범죄자였지만 현 미 행정부의 거듭되는 간청을 접수하고 왐비어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2017년 6월 13일부 중앙재판소 판정에 따라 그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음.

o 이러한 사실을 전면 외곡(왜곡)하고 고의적으로 반공화국 비난소동을 일으키면서 감히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보복》과 《압력》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적 모략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대해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난(6.6, 중통·중방)

o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의 '북한 대표단 외교행낭 압수' 관련 미국 정부의 사죄 요구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 및 폭격훈련 관련 비난·위협(6.18~22, 중통·중방)

o 미국 국무부의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북한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 발표에 대해 비난 및 위협(6.30, 중통·중방)

▌주요 내용(6.6, 중통·중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빠리협정(기후변화에 관한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음.

o 지난 1일 트럼프는 빠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음.

o 지구 온난화는 현 시기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도전중의 하나로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나라들마다 탄산가스 방출량을 줄일 데 대하여 제정한 빠리협정임.

o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 제일주의》가 빠리협정 탈퇴에로 이어진 것은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살겠다는 리기주의와 도덕적 저렬성의 극치임.

- 동시에 지구환경이 보호되여야 미국에도 리롭다는 리치조차 깨닫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짓임.

o 미국의 리기적인 행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o 조선반도 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그 대표적 실례임.

o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다 못해 이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다른 나라들에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을 강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임.

o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머리를 기웃거리지만 말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사상조류에 경계심을 높여야 함.

o 트럼프패의 허세에 눌리워 더 이상 맹종맹동[22] 하다가는 앞으로 력사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주요 내용(6.18, 중통)

o 지난 16일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자 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우리 대표단이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 미국의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로 말미암아 외교신서물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o 우리는 미국이 감행한 우리 외교신서물 강탈행위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행위, 극악한 도발행위로 락인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미국의 날강도적 도발행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만천하에 적라라(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o 유엔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적 회합의 마당으로 되여 있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주권국가의 외교신서물에 대한 강탈행위가 벌어진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법, 무법의 깡패국가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됨.

o 이처럼 외교신서물에 대한 무지막지하기 짝이 없는 강탈행위가 판을 치는 뉴욕이 과연 국제회의 장소로서 적합한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심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o 미국은 이번에 감행된 주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우리 측에 설명하고 정부적으로 공식 사죄해야 함.

o 미국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앞으로 차례질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주요 내용(6.22, 중통·중방)

o 미국은 지난 20일 핵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남조선 상공에 끌어들여 모의 폭격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월 1차 이상 전략폭격기들을 조선반도에 출동시키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음.

o 이번 군사적 망동을 통하여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음.

o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핵위협 공갈도수를 날로 높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조치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실증하고 있음.

22) 맹종맹동 : 『북한어』 원칙과 주견이 없이 남에게 복종하여 행동하는 것.

o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 압력이 오히려 우리를 핵 및 탄도로케트 위력강화에로 떠미는 추진력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o 미국이 무모한 군사적 도박에 매여 달릴수록 우리는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력의 고도화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 다그쳐나갈 것임.

▌주요 내용(6.30, 중통·중방)

o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신매매 범죄의 왕초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 있는 미국이 또다시 주제넘게도 그 무슨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신매매》 실태라는 것을 꾸며대며 횡설수설하였음.

o 특히 미 국무장관 틸러슨은 요즘 입만 벌리면 우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과의 합법적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 로동》이요 뭐요 하면서 악담질을 해댔음.

o 트럼프 정부는 《인권》 타령을 늘어놓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려고 접어들었다가 불벼락을 얻어맞은 오바마 정부의 과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함.

o 미국은 해마다 숱한 품을 들여 꾸며내는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북데기[23] 종이장을 내흔들면서 세계를 훈시하려고 어리석게 날치지 말고 살인과 략탈, 인신매매 행위를 비롯한 온갖 범죄가 판을 치는 악의 소굴인 저들의 더러운 땅덩어리나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임.

o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무분별해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병적인 반공화국 대결 광증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으며 틸러슨 따위와 같은 온갖 악의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에 충만되여 있음.

23) 북데기 : ① 짚이나 풀 따위가 함부로 뒤섞여서 엉클어진 뭉텅이.
② 『북한어』 벼나 밀 따위의 낟알을 털 때 나오는 짚 부스러기, 깍지, 이삭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③『북한어』 아무 쓸모없거나 속이 텅 빈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북한어』 알찬 내용이 없이 거짓말만 늘어놓은 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

▌개 요

o 日 아베 수상 등의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對北 비난 및 독자제재 등 움직임에 대해 "유사 시 미국보다 먼저 일본 열도가 초토화될 수 있음"을 위협(6.8,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최근 일본의 아베 패당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들을 악랄하게 걸고 들며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박 책동에 추종하여 제일 못되게 놀아대고 있음.

- 일본수상 아베와 내각 관방장관 스가 등 일본의 우두머리들이 7개국 수뇌자회의와 《아시아 안보회의》를 비롯한 공식 및 비공식 무대들에 흉물스러운 낯짝을 내밀고 《북핵 위협》이니, 《엄중한 도전》이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 대결각본을 외워대며 세계 앞에서 야단법석이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임.

o 지금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정탐위성 발사와 신형 요격 미싸일 도입, 미 공군과의 합동훈련, 미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의 련합 훈련에 기승을 부리다 못해 지방별로 주민 대피훈련이라는 것까지 벌리며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새로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데도 누구보다 앞장서 극악스럽게 날뛰였음.

o 우리의 자위력 강화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도꼬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 섬나라 족속들의 망동을 두고 내외 여론들은 《북 미싸일 대응에 혼이 빠진 일본》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o 일본이 그렇게도 안보가 불안스러우면 미국의 삽살개가 되여 돌아칠 것이 아니라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일본 섬들에서 모두 내쫓으면 될 것임.

o 지금처럼 일본이 우리의 주먹 가까이에서 고약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일단 유사 시 미국보다 먼저 일본 렬도가 통채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o 일본과 같은 정치 난쟁이가 제아무리 악을 써대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우리의 정의의 핵 보검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며 온갖 적대세력들이 발악할수록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로케트 맹주국의 위용은 더욱 힘차게 떨쳐질 것임.

o 일본은 자비를 모르는 우리의 불패의 핵무력 앞에서 섬나라의 운명을 놓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함.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성명

▌개 요

o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 관련 비난 및 위협(6.10, 중통)

▌주요 내용

o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선군조선의 다발적이고 연발적인 핵무력 강화조치에 기겁한 미국이 분별을 잃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제재소동을 더욱 미친 듯이 벌이고 있음.

- 트럼프 정권은 사상처음으로 2개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동시에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괌에 배치된 모든 《B-1B》 전략 폭격기들을 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핵 선제타격 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한데 이어 또다시 핵 잠수함을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우리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 공격을 가상한 미사일 요격시험까지 벌여놓았음.

- 또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나라들이 대북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지난 1일 대조선 《독자 제재》 조치라는 것을 발표하고 3일에는 유엔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였음.

o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부정하고 란폭하게 침해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적대행위이며 폭발전야의 조선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극히 무모하기 그지없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임.

o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압박과 전쟁도발 책동이 날로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힘.

o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자주적인 핵 보유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함.

o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위력한 수단임.

o 우리를 핵 보유에로 떠민 장본인인 미국이 오늘에 와서 《완전 핵 페기》를 전제로 기만적인 《대화》를 떠들어대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여 이미 자기의 손에 틀어쥔 핵을 내려놓을 우리가 아님.

o 지금까지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노골적인 핵전쟁 위협으로 우리의 핵 보유를 가로막으려 하였지만 그것은 정반대로 우리의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음.

o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둔 우리 전략군의 각종 탄도로케트들이 연일 폭음과 불기둥을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치솟고 있음.

o 지금 세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우리 제도를 말살해보려고 발악해온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오히려 강화된 우리의 핵무력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경탄의 박수를 보내고 있음.

o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

o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 도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백악관이 상상할 수 없는 초강경 대응조치로 우리에게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압박과 고통을 미국에 줄 것이며 그 《선물 보따리》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해지게 될 것임.

o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이미 우리 핵무력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으며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강위력한 핵무기, 주체탄들이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발사되어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박살낼 수 있게 격동상태에 있음.

o 미국은 어떤 상대와 마주섰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도발적인 제재와 무모한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의 핵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무분별한 자멸적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함.

「외무성」 보도

▌개 요

o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경제·보건·인도주의 분야 등 대북제재' 관련 비난 및 위협(6.16, 중통)

▌주요 내용

o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재의 구실로 들고 나오는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산물로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면서 부당하고 비법적인 제재압박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는 우리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범죄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o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의 반인륜적이며 반문명적인 성격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의 《제재 결의》들을 가장 비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음.

o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 제2270호의 제재항목 호화상품 조항에는 체육기재들까지 포함되었음.

o 적대 세력들의 제재압박 소동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와 인도주의 분야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음.

- 《이중용도》요 뭐요 하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질병치료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물자들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일반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제재결의》조항이 한갖(한갓) 기만에 불과하며 《제재》가 실제로 우리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과 생명 그 자체를 공격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

o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과 질식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 봉쇄책동은 도수를 넘고 있음.

o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어지고 있는 광란적인 제재 압박책동의 첫째가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임.

o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도용하여 전대미문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 리행에 세계 모든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함께 유엔 《제재》의 구멍을 메꾼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 책동에 악착하게 매여달리고 있음.

o 미국이 반세기 이상에 걸쳐 우리 공화국에 가해온 각종 《제재》들은 《2016년 대북조선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같은 악법들에 의하여 더욱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o 미국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드는 《표적 제재》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제재》들을 계속 조작해내면서 우리의 모든 대상들에 《단독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국내법을 전면적으로 완비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o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제재》 책동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지름[24]을 쓰면서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음.

o 이와 함께 미국은 유엔 헌장과 외교관계에 관한 윈 협약[25] 등 국제법을 공공연히 유린하면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아니면 그 급수를 낮추라고 강박하고 있음.

o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전면대결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비렬하고 야만적인 《제재》 책동에 매여 달린다고 하여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음.

o 미국과 적대 세력이 우리에게 사상최대의 제재압박을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만을 자아낼 뿐이며 침략과 악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들은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임.

24) 모지름 : 『북한어』 '모질음'의 북한어.
※ 모질음 : 고통을 견디어 내려고 모질게 쓰는 힘.

25) 외교관계에 관한 윈 협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빈 협약)'의 북한어.
외교사절의 직무·특권과 면제에 관하여 1961년 4월 18일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

▌개 요

o '세계 피난민의 날'(6.20.) 즈음 '현 시기 피난민 사태의 원인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외정책 때문'이라고 비난(6.17, 중통)

▌주요 내용

o 오늘 세계적으로 피난민 수는 6,5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으며 피난민 발생과 그들의 권리보장 문제는 사회정치적 및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난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

o 현 시기 전대미문의 피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대외정책에 있음.

o 새 세기에 들어와 인류를 커다란 불안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피난민 사태는 미국이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서방나라들을 끌어들여 전세계적 범위에로 확대하고 있는 《반테로전》의 필연적 산물임.

o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미국의 《반테로전》이 지속될수록 그 대상으로 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피난민 행렬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함.

o 사상최대의 피난민 사태를 조장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임.

o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피난민 입국을 막는다고 하면서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늘이고 군대는 물론 현대적인 감시수단까지 동원하여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o 일부 나라들에서는 피난민들에 대한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을 화물용 짐함 안에 가두어넣고 다른 나라에로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경우 범죄자들처럼 석방시키지 않을 데 대한 《법》을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음.

o 전대미문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키고 피난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범죄적 행위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 성명 채택'(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에 대해 비난(6.28,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국제 금융감독 기구인 자금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 행동 그루빠(그룹)가 21일부터 23일까지 에스빠냐(스페인)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조선을 걸고드는 《공개 성명》이라는 것을 또다시 발표하였음.

o 대변인은 《공개 성명》에는 어떻게 하나 조선을 《자금 세척국》으로 매도하고 비법적인 대조선 금융제재를 합리화하여 공화국의 핵무기를 빼앗아보려는 미국의 비렬하고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폭로하였음.

o 미국의 사촉 하에 기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 지원 반대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금융감독 및 정보사업 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공개 성명》을 또다시 채택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음.

o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산물임.

o 국제 금융감독 기구 측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자금세척, 테로 자금 지원방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제기한 바 있는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들이 공모결탁하여 감행한 특대형 국가 테로 음모를 문제시하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함.

o 국제 금융감독 기구가 미국의 손탁[26]에 놀아나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구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해 심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26) 손탁 : 『북한어』 '손아귀'의 북한어.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미국의 군사적 압박(니미츠·레이건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B-1B 전략폭격기 모의 폭격훈련 등)에 대해 비난 및 위협(6.29,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 따른 고강도 제재와 병행하여 침략적인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련속 들이밀며 군사적 위협 공갈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음.

o 지금 미국은 《니미쯔》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미 7함대의 작전수역인 서태평양 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여 있는 《로날드 레간》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해상 작전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음.

o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 공갈책동은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됨.

o 엄중한 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횡포무도한 군사적 압박공세에 대해 언론에 뻐젓이 공개까지 해대면서 핵전쟁 살인 장비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임.

o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군사적 기도가 이미 무모한 실행단계에 들어섰으며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되였다고 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광고가 핵 선제 타격을 포함한 북침전쟁 도발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는 력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을 저들의 본토에서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 것임.

o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개와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조선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북한 反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설비 유엔제재 위반 구입, 스키장 운영에 아동노예 노동력 이용 등' 발언에 대해 비난(6.30, 중통)

▌주요 내용

o 최근 반공화국 《인권》 모략 단체인 《북조선의 반인륜범죄 철폐(철폐)를 위한 국제련합》이 한 성원을 내세워 마식령 스키장에서 리용되는 설비들은 대부분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구입한 것이라느니, 마식령 스키장 운영에 《아동노예 로동력》이 리용되고 있다느니,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던 30명의 청년들이 뻐스사고로 사망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 것은 완전한 날조임.

o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러한 생뚱같은 거짓말을 꺼리낌없이 해대는 것은 용서못할 비렬한 행위임.

o 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대중화된 우리 마식령 스키장에서 전민을 위해 리용되고 있는 스키 설비들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들여온 것이라면 유엔제재야말로 인민대중의 체력증진과 문명한 생활을 가로막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행위로 됨.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위원장)

06.01. 삼지연군에 '선물(선전선동 수단, 윤전기재)' 전달(6.2, 중방)

(미상) '강서 약수공장' 시찰(6.3, 중통·중방)

06.03. 생일을 맞이한 라울 카스트로(쿠바 평의회 의장)에게 축전(6.3, 중통·중방)

(미상)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6.5, 중방·중통)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미상)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6.8, 중방·중통)

(미상)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6.9, 중통·중방)

(미상)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6.11, 중방)

(미상) 초·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11, 중방)

06.12. 러시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6.12, 중통·중방)

(미상)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6.20, 중방·중통)

(미상)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21, 중방)

(미상) 예술 교육기관들과 과외 교양기지들(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등)에 '최신식 악기' 선물(6.21, 중방)

(미상) 신동량(남포 수산대학 교원)·정춘모(강원일보사 공훈기자)에게 80세 '생일상' 전달(6.28, 중통·중방)

(미상)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30, 중방)

강양모(남포시 당 위원회 위원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강서 약수공장' 시찰 시 영접(6.3, 중통·중방)

고인호(내각 부총리, 농업상)

06.01. '온실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7(6.1-6.16)' 개막식(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참석(6.1, 중통·중방)

06.18. 김일성 父子 미루벌 현지지도('57.6.19.)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9, 중방)

곽범기(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1. '온실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7(6.1-6.16)' 개막식(농업연구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참석(6.1, 중통·중방)

06.06. 김일성의 첫 모내기('47.6.7) 70주년 기념보고회(미림 혁명사적지) 참석(6.7, 중통)

06.16.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7》 폐막식(농업연구원 평양 남새과학 연구소) 참석(6.16, 중통)

06.18. 김일성 父子 미루벌 현지지도('57.6.19.)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9, 중방)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김기남(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3. 보천보 전투 승리 8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양강도 예술극장) 참석(6.4, 중통)

06.04.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보천보) 참석(6.5, 중통)

06.04. 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모임(양강도 혜산시 김일성 父子 동상 앞 교양마당) 참석(6.4, 중통)

06.19. 「4.26 만화영화 촬영소」 창작가·예술인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참석(6.20, 중방)

06.20. 「4.15 문학창작단」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참석(6.20, 중통)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06.27. 「선경 불장식 연구소」 창립('07.6.27) 10주년 기념보고회(인민문화궁전) 참석(6.28, 중방)

김능오(평안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06.01. 학생 소년들이 마련한('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와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즈음)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 모임 참석 및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에게 '증정서' 전달(6.1, 중통)

06.08. '김정일 평안북도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9, 중방)

김문철(조선 장애자보호연맹 위원장)

06.04. 평양 장애자 교류단의 영국 공연 후 귀환(6.4, 중통·중방)

김봉영(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06.30. '선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함흥경기장) 참석(6.30, 중통)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미상) 양강도·함경남도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식(치료실·운동실·오락실 등 구비) 참석(6.4, 중통)

(미상) 함경남도 혁명사적관 개관식 참석(6.20, 중통)

06.30. '선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함흥경기장) 참석(6.30, 중통)

김수길(평양시 당 위원회 위원장)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06.01.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일 관련 축전(6.14, 중통·평방)

06.06. 스웨덴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에게 축전(6.6, 중통·중방)

06.08. 이란 대통령에게 테러피해 관련 위문 전문(6.8, 중통·중방)

06.10. 미얀마 대통령(틴 쩌)에게 '군용기 추락사고 인명 피해' 위문 전문(6.10, 중통)

06.12. 필리핀 대통령(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필리핀 독립 119주년' 축전 및 '양국 친선 협조관계 발전' 강조(6.13, 중통·중방)

06.15. '블럭 불가담 운동' 의장(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비난' 편지 발송(6.21, 중통·중방)

06.23. 룩셈부르크 국경절 즈음 同國 대공에게 6월 23일 축전(6.23, 중통·중방)

06.20. 모잠비크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24, 중통·중방)

06.26. 작별 방문한 駐北 스웨덴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6.26, 중통·중방)

(미상) 스웨덴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 북한 방문(6.20 ~ 23)시 의견 교환(6.26, 중통)

06.29.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네팔 특명 전권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6.29, 중통·중방)

06.30. 콩고 민주공화국 독립 57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30, 중통·중방)

06.30. 수단 혁명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6.30, 중통)

김영대(조선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김영재(대외경제상)

06.09.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최 自國 국경절 즈음 연회(대동강 외교단회관) 참석(6.9, 중통)

김영철(당 중앙위 부위원장)

06.16. 리인모(북송 비전향 장기수) 사망 10주기 즈음 화환 진정(6.16, 신미리 애국열사릉 리인모 묘)(6.16, 중통·중방)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김용수(당 중앙위 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강서 약수공장' 시찰 시 영접(6.3, 중통·중방)

김원홍(인민군 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김일국(체육상)

06.02.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혜산 체육관) 참석(6.2, 중통·중방)

김정식(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6.9, 중통·중방)

김창엽(농근맹 위원장)

06.16. '김정일 당 사업 개시('64.6.19) 53주년 농업 근로자들·농근맹원들 경축모임' 참석(6.16, 중통)

김평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3.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6.4, 중통)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 계획위원장)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리만건(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3.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6.4, 중통)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리명수(총참모장)

06.03. 보천보 전투 승리 8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양강도 예술극장) 참석(6.4, 중통)

06.04.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보천보) 참석(6.5, 중통)

리병철(당 중앙위 제1부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6.9, 중통·중방)

리상원(양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

(미상) 양강도·함경남도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식(치료실·운동실·오락실 등 구비) 참석(6.4, 중통)

06.10. 전국 청년학생들 맹세모임(백두산정) 참석(6.10, 중통)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6.22. 駐北 스웨덴 특명 전권대사(산러브 보 토르켈)의 이임 방문 접견 및 담화(6.22, 중통·중방)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미상) 스웨덴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 북한 방문(6.20 ~ 23)시 의견 교환(6.26, 중통)

06.26.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창건 2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6.26, 중통)

리영길(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6.9, 중통·중방)

리용호(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06.08. 유엔 인구기금 집행국장 사망 관련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전(6.8, 중통)

06.12. 신임 네팔 부수상 겸 외무상(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에게 축전(6.12, 중통)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06.25. 슬로베니아 부수상 겸 외무상(칼 에르쟈베츠)에게 '슬로베니아 국경절' 축전(6.25, 중통)

(미상) 스웨덴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 북한 방문(6.20 ~ 23)시 의견 교환(6.26, 중통)

06.27. 신임 베네수엘라 외무상(사무엘 몬카다)에게 축전(6.28, 중통)

06.29. 駐北 네팔 신임 특명 전권대사와 담화(6.29, 중통)

리일환(당 중앙위 부장)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6.8, 중방·중통)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06.03. 보천보 전투 승리 8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양강도 예술극장) 참석(6.4, 중통)

06.04.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보천보) 참석(6.5, 중통)

06.04. 만수대예술단 삼지연 악단 기념공연 〈영원한 메아리〉(양강도 예술극장) 관람(6.4, 중통)

06.07. 네팔 수상에 선출된 '쉐르 바하두르 데우바'에게 축전(6.8, 중통)

(미상)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와 청진 제강소 점검(6.14, 중통)

06.15. '방글라데시, 폭우·산사태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수상(쉐이크 하시나)에게 위로 전문(6.15, 중통)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미상)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실태 현지 점검(6.27, 중통)

06.24. '파키스탄 연쇄 폭탄 테러' 관련 同國 수상에게 위로 전문(6.24, 중통)

박영식(인민무력상)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06.27. 駐北 무관단이 마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6.29.) 1주년 즈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접수(6.27, 중통)

박정남(강원도 당 위원회 위원장)

06.04. 제4차 전국 소년 축구경기 대회 결승경기(평양시 남자팀·남포시 여자팀 각각 1등) 및 폐막식(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 야외운동장) 참석(6.4, 중통)

박춘남(문화상)

06.19. 「4.26 만화영화 촬영소」 창작가·예술인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참석(6.20, 중방)

박태덕(황해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06.18. 김일성 父子 미루벌 현지지도('57.6.19.)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9, 중방)

박훈(건설건재공업상)

06.10. 청진 금속건설 연합기업소 창립('67.6.11.) 5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1, 중방)

서홍찬(인민무력성 제1부상)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신홍철(외무성 부상)

06.09.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최 自國 국경절 즈음 연회(대동강 외교단회관) 참석(6.9, 중통)

안정수(당 중앙위 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강서 약수공장' 시찰 시 영접(6.3,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3.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6.4, 중통)

06.10. 청진 금속건설 연합기업소 창립('67.6.11.) 5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1, 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오영철(문화성 부상)

06.09.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최 自國 국경절 즈음 연회(대동강 외교단회관) 참석(6.9, 중통)

임훈(황해북도 인민위원장)

06.18. 김일성 父子 미루벌 현지지도('57.6.19.) 6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9, 중방)

장철(국가과학원장)

06.19.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참석(6.20, 중방)

장춘실(여맹 위원장)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06.15. '김정일 당 사업 개시('64.6.19.) 53주년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참석(6.15, 중통)

06.22.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즈음 여맹 일꾼·여맹원들 복수결의 모임(신천 박물관 교양마당) 참석(6.22, 중통·중방)

장혁(철도상)

06.15. '철도 협조기구' 제45차 장관회의(러시아 소치) 참석 후 귀환(6.15, 중통)

전광호(내각 부총리)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전승훈(함경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06.10. 청진 금속건설 연합기업소 창립('67.6.11.) 5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11, 중방)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06.01. 학생 소년들이 마련한('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와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즈음)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 모임 참석 및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에게 '증정서' 전달(6.1, 중통)

06.02. 조선소년단 창립('46.6.6.) 71돌 즈음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개막식(과학기술전당) 참석(6.2, 중통·중방)

06.05.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김정은 선물' 전달 모임과 대표증 수여 모임(평양체육관) 참석(6.6, 중방)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대표들의 생일 축하모임(4.25 여관) 참석(6.7, 중통)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6.8, 중방·중통)

06.07.~06.08.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해님 따라 휘날리는 붉은 넥타이'(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석(6.8, 중통)

06.10. 전국 청년학생들 맹세모임(백두산정) 참석(6.10, 중통)

06.28.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 제9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평양) 참석(6.28, 중통·중방)

정경일(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06.01. 학생 소년들이 마련한('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와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즈음)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 모임 참석 및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에게 '증정서' 전달(6.1, 중통)

06.08. '김정일 평안북도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참석(6.9, 중방)

정승일(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6.9, 중통·중방)

조경철(보위국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조남진(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조용원(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강서 약수공장' 시찰 시 영접(6.3,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주영길(직총 중앙위원장)

06.16. 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중앙 노동자회관) 관람(6.16, 중통·중방)

06.21.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복수 결의모임(중앙 계급교양관 교양마당) 참석(6.21, 중통)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06.25.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참석(6.25,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06.03.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6.4, 중통)

06.05.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김정은 선물' 전달 모임과 대표증 수여 모임(평양체육관) 참석(6.6, 중방)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6.8, 중방·중통)

06.07.~06.08.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해님 따라 휘날리는 붉은 넥타이'(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석(6.8, 중통)

06.08.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기록영화 '세상에 부럼없어라' 관람(6.8, 중통)

06.10. 전국 청년학생들 맹세모임(백두산정) 참석(6.10, 중통)

(미상)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 현지 요해 및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방문 및 '종업원들의 생산혁신' 강조(6.16, 중통·중방)

06.21. 문천 밸브공장·원산 철도차량 연합기업소·강원도 체육기구공장·2.8비날론 연합기업소 방문(6.21, 중통)

(미상) 황해남도 재령군(부덕 협동농장 등)의 '가뭄피해 실태' 현지 요해 및 농업 근로자 고무(6.28, 중통·중방)

최부일(인민보안상)

06.04.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보천보) 참석(6.5, 중통)

최태복(당 중앙위 부위원장)

06.03.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6.4, 중통)

06.0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4.25문화회관) 참석(6.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06.19.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참석(6.20, 중방)

최희철(외무성 부상)

06.26.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주최 라마단 종료와 관련한 연회(대동강 외교단회관) 참석(6.27, 중통)

홍선옥(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06.01.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능라 인민유원지) 참석(6.1, 중통·중방)

황병서(총정치국장)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 시 영접(6.5, 중방·중통)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시 동행(6.9,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당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 시 동행(6.20, 중방·중통)

월간 보도일지

대내동향

06.01.(목)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숙천군과 문덕군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농업 근로자들 고무 및 과학적 영농방법' 강조(중앙통신)

■ '국제 아동절(6.1)' 67주년 기념 친선 연환모임, 6월 1일 능라 인민유원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당 부위원장)·전광호(내각 부총리)·홍선옥(최고인민회의 서기장)·김승두(교육위 위원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 위원장)·장춘실(여맹 위원장, 발언) 등 참석 및 駐北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성원·외국 손님들 초대
- 각 도, 시, 군들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 진행

■ 학생 소년들이 마련한('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와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즈음) '소년'호 경비행기들을 인민군대에 증정 모임(6.1.), 김능오(평안북도 당 위원장)·정경일(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증정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및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에게 '증정서' 전달(중앙통신)

■ '온실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7(6.1.~6.16.)' 개막식 진행(6.1,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곽범기(당 부위원장)·고인호(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개막사)·계영삼(농업연구원 원장)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보천보 전투(김일성 조직·지휘) 승리('37.6.4.)' 80주년 기념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 6월 1일 조선 혁명박물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745호】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 3대혁명 붉은기(김정숙 평양 제사공장·평양 껌 공장)·2중 3대혁명 붉은기(평양 곡산공장·2.8직동 청년탄광)·3대혁명 붉은기(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수여(중앙방송)

■ 전국 모내기 70%(수십 개 군, 6백 70여 개 농장 벼 모내기 결속) 계선 및 함경남도 장진·부전군 협동농장들 감자심기 완료(중앙방송)

* 전자공업 부문 일꾼들, 5월 인민경제계획(5.30. 현재) 120% 초과 수행(중앙방송)

06.02.(금)

■ 김정은(당 위원장), 6월 1일 삼지연군에 '선물(선전선동 수단, 윤전기재)' 전달(중앙방송)

■ 【'보천보 전투 승리'('37.6.4.) 80주년 관련 동향】

*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시 낭송모임(영원히 타오르라 보천보의 불길이여), 6월 2일 마두산 혁명전적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6월 2일 중앙 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여맹」, 보천보 전투 승리 80돌 즈음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 발표모임 6월 2일 여성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김일국(체육상,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일 혜산 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소년단 창립('46.6.6.) 71돌 즈음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개막식,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단천 발전소 건설을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들(모두 다 단천 발전소 건설에로, 만리마속도로 단천 발전소 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자) 출판(중앙통신)

■ 민족 악기 '저대'(목관악기) 제작기술,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중앙통신)

06.03.(토)

■ 김정은(당 위원장), '강서 약수공장' 시찰(중앙통신·중앙방송)

- 안정수·김용수·조용원 당 중앙위 책임 일꾼들 동행 및 강양모(남포시 위원장)가 영접
- 약수 생산 증대, 질 향상, 공장 현대화·과학화·자동화 등 과업 제시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6월 3일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보천보 전투 승리'('37.6.4.) 80주년 관련 동향】

* "보천보의 총성은 강도 일제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조선민족과 진보적 인류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승리의 총성이였다"며 "이 전투 소식은 당시 조선 인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찬양(중앙통신/세계를 격동시킨 보천보의 총성)
*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 출발모임, 6월 3일 혜산시 김일성 父子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보천보 혁명전적지,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 참관(중앙통신)
* 北, 새 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중앙통신)

06.04.(일)

■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최룡해·최태복·김평해·리만건·오수용), 6월 3일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중앙통신)

■ '보천보 전투 승리('37.6.4, 김일성 조직·지휘)' 80주년 즈음 '보천보 전투는 항일 무장투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 찬양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보천보의 횃불은 주체조선의 백승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 만수대예술단 삼지연 악단 기념공연 '영원한 메아리' 진행(6.4, 양강도 예술극장), 박봉주(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 등 관람(중앙통신)

■ 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모임 진행(6.4, 양강도 혜산시 김일성 父子 동상 앞 교양마당), 김기남(당 부위원장, 발언) 등 참가(중앙통신)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의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관, 과학기술전당 기초과학관·어린이 꿈관·'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등 방문(중앙통신)

■ 제4차 전국 소년 축구경기 대회, 6월 4일 결승경기(평양시 남자팀·남포시 여자팀 각각 1등) 및 폐막식 진행(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 야외운동장), 박정남(강원도당 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중앙통신)

■ 양강도·함경남도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치료실·운동실·오락실 등 구비), 리상원(양강도당 위원회 위원장)·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중앙통신)

■ 【'보천보 전투 승리'('37.6.4.) 80주년 관련 동향】

* 보천보 전투 승리 80주년 기념 중앙 보고대회, 박봉주·김기남(보고)·리명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3일 양강도 예술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

06.05.(월)

■ 김정은(당 위원장),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7' 참관(중앙방송·중앙통신)

- 황병서(군 총정치국장, 경기대회 순위발표·시상), 박영식, 김원홍, 리영길, 조남진, 조경철, 김광혁, 손철주 영접(6.4, 09시) 및 김광혁(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항공군 상장) 개회사
- "항공군 안의 모든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이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일단 최후 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침략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 버릴 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항공군의 싸움준비 완성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6.4, 보천보), 박봉주(내각 총리)·김기남(당 부위원장)·리명수(군 총참모장)·최부일(인민보안상) 등 참가(중앙통신)

■ 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 6월 5일 보천보 혁명전적지 답사 및 삼지연군 문화회관과 백두산지구 체육촌 참관(중앙통신)

■ 연풍호 소년단 야영소 준공식, 6월 5일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이날 학생 소년들의 첫 기 야영 시작

06.06.(화)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김정은 선물' 전달 모임과 대표증 수여 모임, 6월 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중앙방송)

- 최룡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등 참가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는 학생소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로 된다"며 '모든 소년단원들은 김정은의 참된 아들딸로,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 전국「여맹」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6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중앙통신)

06.07.(수)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김정은(당 위원장)이 연설에 참가한 가운데 6월 6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최태복(당 부위원장), 리일환(당 부장), 김승두(교육위원장) 등 참가
- (의정) △소년단원들을 김정은에게 끝없이 충직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소년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데 대해, △조선소년단 규약 개정
- 김정은은 "소년단원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줄 아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며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소년 혁명가들로 키우자면 소년단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고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대표들의 생일 축하모임,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6일 '4.25 여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조선 혁명박물관·조선소년단 창립 71주년 기념사진 전람회장·중앙 계급교양관 등 '평양 시내 참관'(중앙통신)

■ 김일성의 첫 모내기('47.6.7) 70주년 기념보고회(6.6, 미림 혁명사적지), 곽범기(당 부위원장)·계영삼(농업연구원 원장) 등 참가(중앙통신)

■ 중구 공공건물 건설사업소 창립('47.6.7.) 70주년 기념 보고회, 6월 6일 최승철(지배인, 기념 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앙방송)

■ 당 선전 일꾼(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中), 6월 7일 백두산밀영 고향집 방문 및 선오산·곰산 밀영 등 답사(중앙통신)

■ 국가 우표발행국, 중앙동물원(현대적으로 개건, 지난해 7월 준공) 소개 새 우표들(소형 전지 7종) 발행(중앙통신)

■ 농업연구원 과학자들, 농업발전 추동 과학연구사업(서해안 지방 적합 다수확 벼 품종 육종 등) 적극 추진(중앙통신)

06.08.(목)

■ 김정은(당 위원장),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공개 활동(중앙방송·중앙통신)

- 최룡해(당 부위원장), 리일환(당 부장), 전용남(청년동맹 제1비서) 참가
-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이 소년단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며 조선소년단을 지덕체의 용마타고 사회주의 조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가는 백두산 대국의 미래 주인공들의 대오로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함.

■ 조선소년단 창립 71돌 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6.7.~8.) '해님 따라 휘날리는 붉은 넥타이', 최룡해·전용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참가자들, 최룡해와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6월 8일 기록영화 '세상에 부럼없어라' 관람(6.8, 중앙통신)

■ '전국 소년 과학환상 문예작품 및 모형 전시회-2017' 폐막식, 6월 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문학예술출판사, 여러 종류의 도서들 출판(중앙통신)

- 총서(불멸의 향도), 장편소설(영원한 넋), 단편소설집(여명), 단편소설들(맑은 하늘, 지름길, 약속, 피어나는 꿈, 따사로운 우리 해님, 햇빛 밝은 집 등), 연속편(봉이 김선달 이야기(3))

06.09.(금)

■ 김정은(당 위원장),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 동행
- "이번 시험발사는 전술 기술적 제원들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로케트와 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 차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용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됨."
- "무한궤도식 자행 발사대 차에서의 순항 로케트의 발사관 이탈 특성과 발동기들의 시동 특성, 초저공 순항비행 체제로의 신속한 진입 특성들을 확증함."

– “초저공 장거리 순항비행 체제에서의 비행 안정성, 여러 가지 비행경로에 따르는 기동 특성, 탄상 복합 유도 머리의 목표 표착 및 유도 정확성, 적아(敵我) 식별 특성, 목표 진입 시 급격한 고도이행 능력을 검토함.”

■ ‘김정일 평안북도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 김능오(평안북도 당 위원장)·정경일(평안북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8일 진행(중앙방송)

* ‘보천보 전투 승리’(6.4.) 80주년 기념 만수대예술단 삼지연 악단 공연, 6월 5일부터 9일까지 양강도 혜산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조일민)와 성원들,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에 즈음하여 6월 9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참관(중앙통신)

■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6월 9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중앙통신)

06.10.(토)

■ 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 리명수 혁명사적지(6.8.)와 대홍단 지구(6.9.) 답사(중앙통신)

■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 6월 9일 ‘김정은 지시 관철’ 궐기모임 진행(중앙방송)

■ 전국 청년학생들 맹세모임 진행(6.10, 백두산정), 최룡해(당 부위원장)·리상원(양강도 당 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 참가(중앙통신)

■ 청진 금속건설 연합기업소 창립(‘67.6.11.)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6.10.), 오수용(당 부위원장, ‘당 축하문’ 전달)·전승훈(함경북도 당 위원장)·박훈(건설건재공업상) 등 참가(6.11, 중앙방송)

※ 건설건재 공업상 교체: 동정호(現 부총리) → 박훈

■ 황해남도·평양시 등 각급 여맹 조직·여맹원들의 128만여 톤 퇴비·가루거름, 394만 9,000여 점 각종 소농기구·영농물자 마련, 수천 개 농장들에 전달(중앙통신)

06.11.(일)

■ 김정은(당 위원장), ‘강서 약수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중앙방송)

■ 김정은(당 위원장), 초·중등학원 건설과 원아들을 도와준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67.6.) 50주년 기념보고회, 6월 10일 함흥 대극장에서 진행(중앙방송)

■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에 참가한 당 선전 일꾼들의 결의모임, 삼지연 대기념비 김일성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6월 11일 진행(중앙통신)

■ 선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6월 11일 함흥경기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흥, 평성, 사리원 등지에서 축구, 농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10여 개 종목의 경기들 진행

■ 北, 10일 현재 전국적인 '벼 모내기 실적' 90% 계선 돌파(중앙방송)

06.12.(월)

■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중앙통신)

■ 北 서해 연안의 간석지 습지와 철새 보호 관리를 위한 민족토론회, 6월 12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수산성 산하 여러 단위들, 상반기 계획 조기 완수(평양방송)

06.13.(화)

■ 조일민(「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즈음 중통 회견(6.13.)에서 "6.15를 지키면 모든 것을 얻고 6.15를 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6.15선언 이행을 통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 결의(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각 도 중등학원 원아들 참가, 축구·배구 등 평양 중등학원에서 6월 20일까지 진행) 개막식(6.13, 평양 중등학원) 진행(중앙통신)

■ '김정일의 3대혁명 전시관 현지지도'('97.6.15.) 20주년 관련 '지난 20년간 근 970만 명 참관(인민군 장병들·각 계층 근로자, 해외동포·외국 손님)' 선전(중앙통신)

06.14.(수)

■ 박봉주(내각 총리),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와 청진 제강소 점검(중앙통신)

- "산소열법 용광로 건설과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를 위한 공사, 주체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노동계급과 기술자, 일군들을 고무해 주고 협의회를 진행함."
- "협의회들에서는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의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데 대하여와 청진 제강소 주체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 강구함."

■ '김정일 3대혁명 전시관 공개 활동'('97.8.15) 20주년 기념 보고회, 6월 14일 진행(중앙통신)

■ 수산 사업소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000t의 물고기를 더 잡는 성과 이룩(중앙통신)

■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선전화 출판(중앙통신)

–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전국의 본보기 군, 표준 군으로 꾸리자”, “삼지연군 꾸리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자.”

■ ‘세계 헌혈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 6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06.15.(목)

■ 김정일 저작(‘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97.6.19.)에 대한 중앙 연구토론회, 6월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일 당 사업 개시(‘64.6.19.) 53주년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장춘실(여맹 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5일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일, 3대혁명 전시관 현지지도’(‘97.6.15.) 20주년 기념보고회, 6월 14일 현지에서 진행(중앙방송)

■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전시회’,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예정(중앙통신)

– 北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 개 단체들 참가

06.16.(금)

■ 최룡해(당 부위원장),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백두산 종합박물관과 혜산-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 현장 등) 현지 요해 및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방문 및 ‘종업원들의 생산혁신’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영구보존 관리하며 삼지연군 꾸리기에서 나서는 모든 대상 공사를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내밀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힘 있게 벌릴 것’ 강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51호(6.9.)」 모범적인 단위에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덕천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탄광부재 공장 등 13개 단위)·‘26호 모범기대 영예상’(평양 기계종합대학 재료공학부 등 10개 단위) 수여(중앙방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52호(6.9.)」 혁명적 준법기풍 확립 이바지 단위(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등 29개 단위)에 ‘모범 준법단위’ 칭호 수여(중앙방송)

■ 리인모(북송 비전향 장기수) 사망 10주기 즈음 김정은 화환 전달 및 김영철(당 부위원장) 등 참가 화환 진정(6.16, 신미리 애국열사릉 리인모 묘)(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당 사업 개시('64.6.19.) 53주년 농업 근로자들·농근맹원들 경축모임 진행(6.16, 강원도 안변군 천삼 협동농장), 김창엽(「농근맹」 위원장, 보고) 등 참가(중앙통신)

* 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도 진행(6.16, 중앙 노동자회관), 주영길(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온실 남새 부문 과학기술 토론회-2017' 폐막식 진행(6.16, 농업연구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곽범기(당 부위원장)·계영삼(농업연구원 원장) 등 참가(중앙통신)

■ 무산광산 연합기업소 일꾼, 6월 5일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6만여 톤 철정광 증산(평양방송)

06.17.(토)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과 강원도 양묘장 및 어구 종합공장 건설장 점검(중앙통신·중앙방송)

- 평강 고기가공공장, 애국 소목장 등을 돌아보고 922건설 돌격대원들 고무
- 축산기지의 정상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 토의

■ 함흥 모방직공장, 상반년 생산계획 154%로 초과 완수(평양방송)

06.18.(일)

■ '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정현(조선장애자 보호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8일 청년 중앙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06.19.(월)

■ '김일성 父子 미루벌 현지지도'('57.6.19.) 6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6.18.), 곽범기(당 부위원장)·고인호(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박태덕(황해북도 당 위원장, 기념보고)·임훈(황해북도 인민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김정일 당 사업 시작('64.6.19.) 53주년 동향】

* 김정일의 선군영도 등 '당 건설 업적(수령 중심의 당 건설 사상 구현,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 등)' 칭송 및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당의 강화발전 위한 '김정은 당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결사옹위, 초급당·당세포 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쳐 나가자)

*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김정은 당 위원장 꽃바구니 전달 등 당·무력·정권기관·사회단체와 인민군 군인·각 계층 근로자·청소년 학생들 헌화(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과 전국 각지 김일성 父子 동상에 인민군 등 참배

* 평양 극장들에서 중앙 예술단체들 경축 공연(모란봉 극장: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봉화 예술극장: 음악 무용시 등) 및 황해북도·함경남도·평안북도 등 각 도 예술단체 예술인들 경축 공연 진행(중앙통신)

* 청년 학생들 무도회, 6월 19일 당 창건 기념탑·평양 체육관 광장 등 평양 무도회장과 각 도 소재지들에서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발표 22주년 즈음 사상 사업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사상 공세를 짓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라며 '사상 사업'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사상 사업은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위력한 원동력)

■ 황해남도, 6월 16일 현재 '봄 밀보리 가을걷이 실적' 65% 계선 돌파 보도(평양방송)

06.20.(화)

■ 김정은 당 위원장,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시찰(중앙방송·중앙통신)

- 황병서, 박봉주, 최태복, 오수용, 안정수, 서홍찬, 조용원, 마원춘 동행
- "김정은 당 위원장이 직접 발기한 치과 위생용품 공장은 연건축 면적 1만 2,720㎡이고 연간 수천만 개의 치약, 각종 치과위생 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 위생용품 종합 생산기지임."

* 김정은 당 위원장, 중요대상 건설을 성심성의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4.15 문학창작단」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김기남(당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0일 진행(중앙통신)

■ 「4.26 만화영화 촬영소」 창작가·예술인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김기남(당 부위원장, 축하문 전달)·박춘남(문화상)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9일 진행(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111호 제작소 과학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 최태복(당 부위원장, 축하문 전달)·장철(국가과학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9일 진행(중앙방송)

■ 함흥시와 혜산시 가방공장 준공식,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경남도 혁명사적관 개관식,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 개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6.13.~20.) 폐막식, 평양 중등학원에서 진행(중앙통신)

06.21.(수)

■ 김정은 당 위원장,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97.6.19.) 발표

20주년에 즈음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강권과 전횡, 국제적인 압력이나 제재가 두려워 자주와 정의의 길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온 누리에 더욱 빛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승승장구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 김정은(당 위원장), 예술 교육기관들과 과외 교양기지들(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 제1음악학원 등)에 '최신식 악기' 선물(중앙방송)

■ 최룡해(당 부위원장), 문천 밸브공장·원산 철도차량 연합기업소·강원도 체육기구공장·2.8비날론 연합기업소 방문(중앙통신)

–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는 데 필요한 자재와 대상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기 위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강조

■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즈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복수 결의모임(6.21,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 주영길(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중앙통신)

■ 은률광산, 상반기 철광석 생산계획 초과 완수(중앙통신)

06.22.(목)

■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즈음 여맹 일꾼·여맹원들 복수결의 모임(6.22, 신천박물관 교양마당), 장춘실 여맹 위원장(보고)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전집」 제17권('72.1.~5. 발표 담화·연설·결론 등 92건 저작 수록) 출판(중앙통신·중앙방송)

■ 전천 탄광의 상반년 석탄생산 100.2% 수행 및 철도운수 부문의 19일 현재 상반년 철도수송 계획 101% 조기 완수(중앙방송)

■ 평양시내 여러 구역들(만경대·순안 등), '가물피해 막기 위한 투쟁'(6.20. 하루, 수천 명 농장원들과 수백 대 양수기 동원)(중앙방송)

■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6.22.~6.26.) 개막식 진행(6.22, 과학기술전당), 최정호(과학기술전당 총장)·김형훈(보건성 부상)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세계 여러 나라·지역의 100여 개 단체들이 출품한 건강식품과 제품,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 진단과 치료예방에 이용되는 가정용 의료기구들 전시'

06.23.(금)

■ "가물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 목표를 점령하는가,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는가 아니면 적대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질식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며 가물피해 막이 전투에 온 나라가 떨쳐나설 데 대해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가물피해 막이 전투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자)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강령군과 옹진군 농사실태 점검(중앙통신)

- '가물피해 막이 전투에 필요한 윤전 기재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강구'

■ 청년동맹·농근맹 조직, 6.25 전쟁 67주년 즈음 신천 박물관 교양마당과 강서구역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복수 결의모임'(6.23.) 진행(중앙통신)

■ 평양 화장품공장, '은하수' 상표의 치료용 화장품 10여 종 생산(중앙통신)

■ 국제축구연맹 높은 급 축구감독 강습(6.19.~23.),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강습에서는 감독들의 역할과 경기체계, 속도훈련 등 훈련지도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 취급'

06.24.(토)

■ 北,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 전개(중앙통신)

- "황해남도에서 가뭄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1/3밖에 안 되는 66mm정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2001년 다음으로 적음."

06.25.(일)

■ '6.25전쟁'은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대살육전이었다"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北)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제의 북침 핵전쟁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 "우리(北)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님."
-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 핵 선제공격 음모에 반기를 들고 쌍방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미국은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함."

■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6.25, 김일성광장),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연설·군중시위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 주석단 : 김기남·리수용·리만건·김영철·로두철·리용호·김수길·김영대 등
-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첨단 핵공격 수단들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 소탕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임."(차희림)

* 각 도들에서도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군중대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중앙 계급교양관(사진자료 1,670여 점·유물 3,000여 점 등 전시)이 반제반미 계급교양관의 거점으로 새로 꾸려진 이후 '지난 1년간 5,900여 개 단위와 26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각 계층 근로자들 등 참관' 선전(중앙통신)

■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상반년 시멘트생산 계획 6월 8일 결속, 전년 대비 103.6% 장성한 11만여 t 증산(중앙방송)

* 오석산 화강석 광산의 6월 19일 현재 연간 인민경제계획 200% 수행 및 216사단 양강도 여단 돌격대원들의 6월 22일 현재 기초 굴착공사 90% 계선 돌파 등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 건설 성과(중앙방송)

06.26.(월)

■ '평양 국제 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전시회'(6.22.~26.) 폐막식,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국가 우표발행국, 反美 공동투쟁 월간(6.25. ~ 7.27.)에 즈음한 새 우표(개별우표 2종) 발행(중앙통신)

■ 평양 신발기계공장, 금구 생산설비 국산화 실현(중앙통신)

– '신발 형태에 따르는 갖가지 금구제품들을 생산, 전국 신발공장들에 전달'

06.27.(화)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북도 황주군 가뭄피해 실태 현지 점검(중앙통신)

– '영양수를 이용한 효과적인 가뭄피해 막이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성·중앙기관들에서 피해 막이에 필요한 윤전기재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 강구'

* 평양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중앙통신)

■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군중대회, 시·군들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 지시 관철' 위한 '치과 위생용품 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6월 26일 진행 및 결의문 채택(중앙통신)

06.28.(수)

■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황해남도 재령군(부덕 협동농장 등)의 '가뭄피해 실태' 현지 요해 및 농업근로자 고무(중앙통신·중앙방송)

– '가뭄과의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나갈 데 대해서와 관수설비, 운반수단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우물과 굴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데' 대해 강조

■ 北, "전국적으로 수만 정보의 논밭이 말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황해북도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며 '극복 투쟁' 독려(중앙통신)

- "지난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비가 내렸지만(황해남도 5mm·남포시 2mm·평양시 11mm·황해북도 17mm), 전국적으로 30%의 저수지들이 말라 심한 수원부족을 느끼고 있음."

* 농업부문 일꾼들, 6월 25~26일 '2만 4천 7백여 정보의 논·밭 물주기' 진행(중앙방송)

* 원유공업성 등 성·중앙기관 일꾼들도 황해남도 은률군 내 협동벌 논·밭들에 물 공급(중앙방송)

■ 「조선 우주협회」 제3차 위원회, 6월 2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및 리원철(조선우주협회 위원장·김책공업종합대학 부총장)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우주 과학기술 토론회-2017'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 제9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6월 28일 평양에서 진행 및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보고)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연설("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 혁명가가 되자") 제시 과업 관철을 위한 청년동맹 조직들 과업 토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772호(6.20, 발표), 모범적 단위에 '2중 3대혁명 붉은기'(만경대 닭 공장 등 13개 단위)·'3대혁명 붉은기'(순안구역 동산 협동농장 제1작업반 등 31개 단위) 수여(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773호(6.20, 발표), 모범적 단위에 '영예의 붉은기'(모란봉구역 진흥 초급중학교 등) 수여(중앙방송)

■ 「선경 불장식 연구소」 창립('07.6.27.) 1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6.27, 인민문화궁전),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황해북도 농촌들(송림시 협동농장 등), '봄 밀보리' 가을 결속(중앙방송·평양방송)

* 각지 농업대학들(김일성종합대학·숙천 농업대학)에서 '과학농사에 기여할 연구 성과(농기계 개발·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 이룩'(중앙통신)

■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 만화영화 '소년장수' 등 창작(중앙방송)

■ 김정은, 신동량(남포 수산대학 교원)·정춘모(강원일보사 공훈기자)에게 80세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06.29.(목)

■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16.6.29.) 1주년 관련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에 따라 사회주의 강국의 영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온 승리와 기적의 나날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지난 1년간의 업적(여명거리 건설, 화성-12형과 북극성-2형 시험발사 성공 등) 선전(중앙통신)

■ 北 각지 협동농장들,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들 진행(중앙통신)

- △평안남도, 지하수를 찾아 이용 △개천시 보부 협동농장, 근 30개의 우물을 파서 물 원천 확보 △은산군, 하루 동안 수백㎥ 능력의 저류지 건설 △평안북도, 수천 개의 굴포와 우물들 보수 △신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각종 윤전기재들과 물 운반수단들 총동원 △개성시, 500여 개의 굴포와 700여 개의 우물 신축 및 복구와 100여 개소 보막이 공사 진행

■ 강원도 전쟁노병 보양소 준공식, 6월 28일 진행(중앙통신)

06.30.(금)

■ 김정은(당 위원장),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과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선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김성일(함경남도 당 위원장)·김봉영(함경남도 인민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월 30일 함흥경기장에서 진행(중앙통신)

대남동향

06.01.(목)

■ '북한 대량 살상무기 제거'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로널드 레이건호의 합동 군사훈련 진행 예정에 대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니 하는 소리들을 늘어놓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였다"며 '우리(北)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와 군사적으로 엇서며 대결의 길로 질주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도발망동)

■ 우리 군부의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에 대해 '새로운 북침 전쟁기구'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06.02.(금)

■ 【「민화협」 대변인 담화(6.2.)】 '박 前 대통령의 범죄혐의 전면 부인' 거론 "사람들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었다"며 '중형을 막아보려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패당의 책동은 민심을 등진 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질 수 있고 뻔뻔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광대극'이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북남관계 개선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 주장하며, 북남관계 파국의 주범인 보수패당을 매장해 버리고, 우리민족 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보수패당의 반통일적 망동은 용납될 수 없다)

06.03.(토)

■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면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온갖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평양방송/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06.04.(일)

■ 北, "現 남북관계는 개선의 궤도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또 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남한 당국은 외세의존 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남북관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자주는 북남관계 문제 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입장)

*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인사들과 보수 언론들의 '北, 미사일 시험발사' 반응 (일관된 제재와 압박·남북관계를 대화로 푼다는 것은 환상)에 대해 '대결의 빗장을 더 깊숙이 질러놓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보수패당이 청문회장에 나선 후보들에게 '색깔론' 공세를 들이댐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를 反北 대결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 및 "줏대 없이 보수패당의 '종북' 타령에 맹탕 끌려다니는 것은 촛불민심 모독"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역사의 패잔병들의 고약한 행악질)

06.05.(월)

■ 국회 인사청문회(국무총리 후보, 국정원장 후보 등)에서 후보들에 대한 안보와 종북 검증 관련 '보수패당이 연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대결 광대극'이라며 '정권에서 밀려난 분풀이를 국회에서 해대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최후 종말의 시각만 앞당기게 될 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세상을 경악케 하는 대결 살풍경)

* "보수잔당은 청와대 문서들을 하나의 증거물이라도 재판에 제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 눈이 되어 날뛰었으며, 고용 변호인단을 내세워 검찰 측 기소자료를 뒤집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박OO 패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녘 민중의 무자비한 심판, 준엄한 극형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중앙통신/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인권위원회' 관련 "남한 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들을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며 "남한 당국은 각 계 시민단체들과 언론 전문가들이 강제 납치된 北의 여성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인권개선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중앙통신/보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06.06.(화)

■ "보수패당이 단절시켰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국정교과서 폐지 반대에 대해 '남조선의 촛불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악랄한 도전'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 떨거지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보수 떨거지들의 필사적인 발버둥질)

06.07.(수)

■ 우리(南) 군의 활동에 대해 "각종 무기체계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전시작전 통제권도 행사 못하고 군사장비들은 온통 고물단지·사병들 전쟁기피 등 허수아비 군대'라고 조소(중앙통신·노동신문/허수아비 무리가 당한 개코망신)

06.08.(목)

■ 【「민화협」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8.)】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對北 제재결의 2356호 지지 관련 "南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보수패당의 집권 때와 같은 대결 소동들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외세와 제재 합창을 하며 동족압살에 매달리는 행위를 걷어치우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06.09.(금)

■ 【「北赤 중앙위」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6.9.)】 집단탈북 女종업원 12명과 김련희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며, "우리(北) 여성 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06.10.(토)

■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6.10.)】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 및 미국의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반응(안보문제 정치 쟁점화 우려·사드 비용 딴 곳에 쓸 수 있다) 비난(친미 역적·사드 배치 강박) 및 '문제는 남한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라고 '각 계층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6.10 민주항쟁' 30주년 관련 "남조선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한 각 계층 인민들의 '외세가 없는 자주의 새 세상, 파쇼독재가 청산된 민주의 새 제도, 온 겨레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릴 것'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정의와 진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06.11.(일)

■ 北, 난수방송(올해 19회째, 2016년 6월 24일 부터 현재까지 총 39회) 실시(평양방송)

■ "외세에 의존하며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외면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민족의 대단결은 자주통일의 근본방도)

■ 美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지지 관련 "남조선 당국자들은 일부 민간교류의 허용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

-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북남 사이의 불신을 격화시키는 후과를 빚어내고 있다."

■ 한OO 국방부 장관의 아시아 안보회의 '북핵 공조' 발언 관련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 인간쓰레기를 국제무대에까지 내세운 남한 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06.12.(월)

■ 6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하수인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세뇌 공정이 될 것'이라 폄훼하는 한편, "미국의 전횡에 겁먹은 남한 당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모순적인 나발을 불어대며 미국의 反공화국 제재소동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예속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한다)

■ '현 남한 당국이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미국의 反공화국 압살책동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어리석은 짓'이라 비난(중앙통신/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이다)

- '6.15공동선언 이행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출로가 있으며,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남북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北, 탈북 女종업원 12명 및 김련희 관련, "괴뢰들은 反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하다가 우리에게 체포된 자들의 송환문제를 연계시키면서 김련희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의 이용물로 써먹으려고 책동하였다"고 강변(중앙통신/여성 공민 송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 "우리 여성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사이에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 사업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6.12.)】 '신효순·심미선 양 사건' (2002.6.13.) 15주기에 즈음하여 "온 겨레는 미제 침략군의 남한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06.13.(화)

■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남북관계와 사드 배치문제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문제는 '미국에 언제나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민중의 인기를 얻었던 현 당국자가 오늘에 와서 겁을 먹고 미국의 요구대로 비굴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민심의 엄한 눈초리가 주시하고 있다)

- "집권을 받들어준 촛불민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미국에 순종하느냐, 남한 당국은 이 물음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사건' 관련 "남한 당국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운운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대미추종의 결과는 파멸뿐이다)

■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및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우리 정부의 지지 입장에 대해 '우리(北)의 정당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의지표시'라며 '외세의존과 동족대결 정책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방향전환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을 촉구(중앙통신·민주조선)

■ 한OO 국방장관의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군사적 공조 강화(6.3. 아시아 안보회의, 韓·美·日 3국 국방장관 회담)' 발언 관련 '문제는 박OO 잔당들을 국제무대에까지 내세우고 있는 현 남조선 당국의 처사'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푼수 없이 날뛰는 특등 호전광)

06.14.(수)

■ 【「조평통」 성명(6.14.)】 6.15공동선언 17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관계 관련 3가지 원칙적 입장(△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천명 및 '대북정책 전환' 압박(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탈북 北 女종업원 12명 관련 '송환前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 불가'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납치 피해자들을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

- "문제는 현재 南 당국의 태도임. 지금 南 당국은 우리(北)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南 당국이 진실로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여성 공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납치만행과 귀순공작의 진상을 파헤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함."

– “우리 여성 공민들의 무조건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북 사이에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 협력도 있을 수 없음.”

06.15.(목)

■ 【「민화협」 대변인 담화(6.15.)】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관련 “민족 공동행사가 南 당국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로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며 “南 당국이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집권 全기간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보고 내외의 비난과 저주만을 받은 보수정권의 전철을 밟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맞아 “6.15의 기치보다 더 좋은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푯대는 없으며 6.15가 가리킨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며 ‘우리(北)는 남북 선언들과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해나갈 것이며, 거기에서 탈선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불멸의 기치)

06.16.(금)

■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성명(6.16.)】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관련 우리 언론 보도(체제 유지용 전시성 행사, 사상 주입의 한계 등)에 대해 ‘보수 언론기관들은 지금부터 항시적 공포·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위협하고, “南 당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보수언론들의 반공화국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

■ 北, 난수방송(올해 20회째, 2016년 6월 24일 부터 현재까지 총 40회) 실시(평양방송)

■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 대변인 담화(6.16.)】 日 아베 총리 특사(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訪韓 발언(“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 등)에 대해 ‘뻔뻔스럽고 극악무도한 추태’라고 비난 및 “남한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지 않고 비굴한 對日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더 큰 대외적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06.17.(토)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특위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6.17.)】 美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파행 관련 청와대 관계자 ‘유감’ 표명을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反보수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체제유지용 전시성 행사) 관련 ‘대가를 처절한 죽음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 협박하고 ‘南 당국의 보수언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중앙통신·노동신문/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악행)

06.18.(일)

■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6.18.)】 美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사드는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하다, 사드 배치 연기로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다그어대며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박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압박(중앙통신·평양방송)

■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 관련 '민족 공동행사가 끝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우유부단하고 모호한 태도 때문'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미의존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노동신문·중앙방송/황당무계한 책임전가 놀음)

06.19.(월)

■ 정OO 국회의장·문OO(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 특사 訪日 외교발언(兩國 관계 복원 등)을 '관계개선 구걸·매국배족적 행위'라며 "남한 당국은 일본에게 구걸하는 추태를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해 나가는 길로 방향전환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정세균 국회의장 訪日 발언(韓日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된 동반자 관계 발전)을 日 총리 특사(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訪韓 발언(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과 대비, '對日 저자세'라며 "남한 당국은 민족자주의 정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중앙통신/대일 저자세는 친일 매국의 전철을 밟는 길이다)

06.20.(화)

■ "현 남조선 당국자들이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외세의존, 외세추종의 자세를 드러내며 남북관계의 전도를 흐려놓고 있다"며 '자주와 외세추종,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동맹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 문제와 통일문제 해결의 전도가 좌우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 美 정부 인사들의 '사드배치 발언'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친미굴종적인 자세는 실망을 넘어 분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고 비난하며, "南 당국자들은 스스로 제 손발을 얽어매는 친미사대와 결별하고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미국식 강권과 전횡의 극치)

*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구차스럽게 놀아대고 있다"며 "원래 사드 배치는 박OO 정권이 남긴 가장 심각한 적폐의 하나로서 그 철회 문제는 현 남조선 당국이 진정 촛불민심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박OO와 같은 미국의 하수인인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중앙통신/촛불민심의 대변자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 美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의정부시와 보수정당이 "기념식을 계속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南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더욱 거세차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민족을 모독하는 친미 광대극)

06.21.(수)

■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1.)】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사항 등)를 거론하며 "現 남조선 당국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떠들면서도 때 없이 우리(北)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는 상대를 자극하는 언동을 그만두고 북남관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

-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도발자로 매도하고 국제적인 제재압박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음."
- "우리민족끼리의 입장과 촛불민심의 편에 서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외세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갈림길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책임적인 출발을 해야 할 것임."

■ 訪日 정세균 국회의장의 아베 日 총리와의 면담에서의 발언(북핵문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의 現 집권세력은 일본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친일 굴종행위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친미, 친일 역적행위에 광분하다가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박OO 패당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친일 매국의 전철을 밟는 반역적 추태)

06.22.(목)

■ 【「조선 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6.22.)】 남한의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現 정권에서 사법당국의 '보안법' 위반 구형은 '촛불 민심에 대한 도전, 인권유린 행위'라며 "남한 당국이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박OO 패당의 동족대결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보안법' 철폐·통일애국 인사들 석방" 주장(중앙통신)

- "앞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을 떠들면서 돌아앉아서는 련북통일 기운을 가로막기 위해 탄압에 매달리는 남조선 당국의 안팎이 다른 형태는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보수패당처럼 동족대결로 질주하겠다는 선언임."

■ 日 아베 총리 특사(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訪韓 발언(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 관련 '문제는 일본의 추태에 대해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는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처사'라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합의 폐기'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철면피한 자들의 날강도적 폭언)

06.23.(금)

■ 대통령 '6.15 축사'(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에 대해 '남북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짓밟는 배신행위, 대결선언'이라며 '정책전환' 촉구(중앙통신·민주조선)

- '南 당국이 北美 간에 해결해야 할 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망상'

■ 【「민화협」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3.)】 웜비어 사망에 대한 대통령 발언(부당하고 잔혹한 대우) 및 南 당국의 억류된 국민 송환요구 관련 '형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을 운운하는 것은 공화국법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며 "北美 사이의 일에 간참하는 친미 근성과 악습을 버리고 강제 억류하고 있는 공민들(집단탈북 女종업원·김련희·권철남)부터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평양방송)

■ '남조선 당국이 선임 보수정권의 대결망동에서 교훈을 찾고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근본문제(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기피하고 몇몇 민간단체들이나 오고가며 과거와 달라졌다는 냄새나 피우려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

- "南 당국이 대결의 길을 계속 걷겠다면 우리 역시 자기의 선택을 할 것임. 부득불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

06.24.(토)

■ 【「민화협」 공개 질문장(6.23.)】 "南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원칙적 문제에 함구무언하고 자위적 핵 무력 강화조치를 걸고드는 대북압박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책임적 결단' 촉구(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민족끼리·민족자주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 △북핵 문제를 배제한 남북대화 △제재와 대화 병행을 철회 △보수정권 대북정책 청산 △집단탈북 女종업원 송환 △민족 대회합 개최

06.25.(일)

■ 北, 난수방송(올해 21회째, 2016년 6월 24일 부터 현재까지 총 41회) 실시(평양방송)

■ 우리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북남관계 개선의 기본전제로 들고 나오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反北 압살책동에 동조하면서 북남관계 개선까지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남한 당국의 정책전환'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반공화국 핵소동)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군조선의 자위적 핵 억제력임."

- "남조선의 현 당국이 무작정 핵문제 해결을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오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 제재압박에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조미간의 문제인 핵문제를 북남사이에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부질없는 망상임."

06.26.(월)

■ 대통령과 외교부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한미 공조와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강화,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근간) 거론 '南 집권자의 美 행각을 앞두고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한 낯간지러운 아부로서 對美추종에 환장하여 제 죽을지 모르고 날뛰는 자의 가련한 추태'라며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초불민심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중앙통신/동맹 강화의 길은 자멸에로 가는 길이다)

■ 북한 관련 국민의당 태도(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제재공조와 강력한 안보의지, 사드 배치 찬성 등) 관련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지율이 떨어진데 당황망조한 나머지 보수층의 환심을 사는 데로 방향전환을 하였다"며 "민주개혁이냐 보수냐,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보수의 구정물에 기어이 발을 잠그려는가)

- '당리당략과 생존에 눈이 어두워 미국과 보수패당의 동족 대결책동에 동조하다가는 민심의 버림을 받게 될 것'

■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개발과 '지리 공간 정보사령부' 창설 계획 관련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미국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며 '우리(北)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다져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제 무덤을 파는 부질없는 경거망동)

06.27.(화)

■ 한미동맹을 '식민지 지배를 위한 예속동맹, 세계제패 전략 실현을 위한 전쟁동맹, 조국통일에 제동을 거는 분열동맹'으로 폄하하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민족끼리냐 미국과의 동맹이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남조선 미국 동맹은 지배와 예속, 굴종의 올가미이다)

■ 우리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주민(인터넷에 김일성 父子 찬양 및 연북통일 주장)에게 징역 5년 구형에 대해 '촛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보안법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구속한 통일애국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천벌을 면치 못할 파쇼적 악행)

* '국가보안법 위반' 주민 징역 5년 구형 관련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동족과의 관계개선이냐, 대결추구냐의 선택을 바로 할 때'라고 주장(중앙통신/동족과의 관계개선이냐, 대결추구냐)

06.28.(수)

■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6.28.)】 박OO 前 대통령과 이OO 前 국정원장을 '최고수뇌부를 해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 테러범죄자'라며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고 위협 및 우리 정부에 '북한 인도' 요구(중앙방송·중앙통신)

- 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인 박OO와 前 국정원장 리OO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함."
- ② "남조선 당국은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행위를 감행한 박OO 역도와 국정원장 리OO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에게 넘겨야 함."
- ③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형 한다는 것을 선고함."
- "최고 존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차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南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자면 우선 미국과 남한 당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의 확고한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 '국민의 당'의 북핵·사드 발언 관련 '새 정치·새 생활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촛불투쟁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06.29.(목)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방 중상 중지' 요구 및 '남북 간 핵문제 논의 배제 입장' 표명(중앙통신·노동신문)

-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 비방 중상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함. 비방 중상이 중지되지 않는 속에서 설사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 협력과 교류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없음."
- "핵문제는 철저히 우리(北)와 미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 핵문제 해결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대화와 관계개선을 거부하는 망동임."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9.)】 文 대통령의 '현무-2' 시험발사 참관 시 대북발언(6.23,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과 '2017년 통일훈련' 등 거론 '대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도발적 망발을 함부로 줴치며 군사적 대결광기를 부리는 것은 대화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제 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6.29.)】 집단 탈북 女종업원 12명과 김련희 관련 우리 정부가 "北 공민들의 송환을 거부하며 강제 억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 및 '송환' 요구(중앙통신·평양방송)

06.30.(금)

■ 北, 난수방송(올해 22회째, 2016년 6월 24일 부터 현재까지 총 42회) 실시(평양방송)

■ 대통령 등 南 당국자들의 한미동맹 강조에 대해 '사대·굴종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에 날뛴다면 남북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예속과 굴종의 쇠사슬을 걷어내야 한다)

■ "박OO가 집권기간 정보원과 작당하여 '北 지도부 제거' 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폭로되었다"며 '南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박OO의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 행위를 놓고 자기 할 바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 이라 주장(중앙통신/살아 숨 쉴 망상을 하지 말라)

- "南 당국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면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 조직자들인 박OO와 리OO 일당을 北으로 지체 없이 넘겨야함. 만일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로 인한 후과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은 南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임." (중앙통신·민주조선)

■ 【「민화협」 대변인 담화(6.30.)】 '자유총연맹'과 '박사모' 등 남한의 보수단체들을 거론하며 "박OO의 집권 시기 극우 보수단체들은 권력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며 무지막지한 깡패 짓도 서슴지 않았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극우 보수 떨거지들이 다시는 독버섯처럼 돋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리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대외동향

06.01.(목)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 확정에 대해 '부끄러운 골동품'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트럼프의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미국 정계와 대조선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 정책 4대 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밝힌다)

- (핵 보유국 不인정)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핵 보유국 불인정은 공화국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핵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완곡된 표현이라고 해야할 것임."
-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우리(北)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음."
- (北 정권 교체 不추진) "우리 제도를 지키는 길은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 자위의 성새를 높이 쌓는 길임."

-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 해결) “미국이 대화를 압박의 연장으로 여기는 한, 우리의 핵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흥정물로 여기는 한, 대화가 열린다 한들 언어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담화(6.1.)】 美 핵 항공모함 칼빈슨·로널드 레이건호 합동훈련(5.31.)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무력증강·북침 핵전쟁 도발)’ 비난(‘세계 제패 야망 불변, 한반도 정세 악화’) 및 “우리의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 결사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대표단, 5월 30일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北)의 탄도 로켓 시험발사는 자위권 행사이며 일부 나라들의 시비는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 및 ‘핵무력 다양화·고도화’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김선경(외무성 유럽2국 국장), 스페인 국회 하원 외교위 성원들(외교위원회 서기장·대변인)과 담화(5.29, 국회 청사) 및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종식’을 강조(중앙통신)

- 5월 30일, ‘현 한반도 정세와 조선-EU 관계 전망’ 주제 좌담회 참가

■ 日 총리의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야스오카)에게 헌법 개정안 작성 지시(국회 중·참 양원의 헌법 심사회 제출용) 및 추진(내년 1월 제출)에 대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경종(중앙통신·노동신문/군국주의 부활 야망의 노골적 발로)

■ 駐北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성원들, 6월 1일 형산 남새전문 협동농장(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지원노동(모내기)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국가 비상재해위 대표단(단장: 강일섭 위원장), 6월 1일 멕시코(‘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연단’ 참가)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김찬욱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6월 1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6.02.(금)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 日 위성발사(6.1.) 거론 ‘공화국을 노린 정탐 위성’이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위성발사에 대하여 함구무언하고 있는 처사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매여 달릴수록 자멸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평양방송)

■ ‘평양 장애자 교류단’, 5.26. ~ 30. 영국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공연(중앙통신)

■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1돌(5.9.) 즈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중앙통신)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김찬욱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6월 2일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 연구사와 일행, 6월 2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6.03.(토)

■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 美 ICBM 요격시험 관련 '전략군에 실전 배치된 강위력한 타격 수단들의 핵공격이 개시되면 괌도와 하와이, 알레스카는 물론 美 본토도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말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의 핵 타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

■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대비 핵전략 자산들 현대화 추진 관련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美 제국주의를 괴멸시키고 그 추종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北)의 자위적 국방정책 관철은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미국의 핵전략 자산 현대화 책동을 주시하고 있다)

■ "미사일 발사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저들이 하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로 되고 조선이 하면 도발로서 긴장을 격화시킨다는 날강도적인 논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北)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우리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 김정은(당 위원장), 생일을 맞이한 라울 카스트로(쿠바 평의회 의장)에게 6월 3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반도 위기관리와 긴장완화에 관한 국제회의(5.31.~6.2,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 주최로 진행(중앙통신)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과 스웨덴·중국·미국·일본·남조선의 정책 연구기관 대표단 참가

06.04.(일)

■ 【「외무성」 대변인 담화(6.4.)】 '미국 독자제재(6.1.)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6.2)'은 '우리(北)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무장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라고 전면 배격 및 '그 어떤 제재압박을 가해 오든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역설(중앙통신)

- "두 개 나라가(미국·중국) 뒷골방에서 제멋대로 꾸며낸 '제재결의안'을 '국제사회의 총의'로 포장하여 내리먹이고 있는 것은 국제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권과 전횡의 적라라(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비난

■ 北,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시험발사 성공'을 강조(미국을 타격권 안에 넣고)하며 "미국에는 최후의 선택만 남아있다(對北 적대시 정책 포기 또는 北의 핵 불세례 감수)"고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핵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 평양 장애자 교류단(단장: 김문철 北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 위원장), 6월 4일 영국 공연 후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06.05.(월)

■ "미국은 두서없이 대화 타령을 늘어놓지만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절대로 버리려하지 않고 있으며 침략의 칼을 끊임없이 갈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총구 앞에서 조는 자멸적인 짓을 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평화타령을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제국주의자들의 평화 타령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 김선경(北 외무성 유럽2국 국장), 유럽 평화연구소 이사장(뻬까 하리스또, 핀란드 국회의원)과 핀란드 국회청사에서 6월 1일 담화(중앙통신)

■ 駐北 유엔 아동기금(UNICEF) 대표와 대표부 성원들,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 협동농장 강냉이밭 김매기 6월 5일 지원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06.06.(화)

■ 美 핵 항공모함 3척(칼빈슨호·로널드 레이건호·니미츠호) 한반도 주변 전개 관련 "우리(北)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우리 식의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6.)】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대해 '온 세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패의 허세에 눌리워 더 이상 맹종맹동 하다가는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외무성 실무 대표단(단장 : 오승호 유럽1국장), 러시아 외무성 초청으로 6월 5일 모스크바 방문 및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1국장과 회담(중앙통신)

-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 및 쌍무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 토의
- 北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성 사이의 2017년-2018년 교류계획서 체결(김형준 駐 러시아 北 대사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성 부상 서명)

– “쌍방은 교류계획서에 따라 상호 왕래와 접촉을 긴밀히 하고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쌍무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기로 하였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스웨덴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국왕에게 6월 6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06.07.(수)

■ 미국의 對北 군사·경제적 압박에 대해 “우리(北)는 명실상부한 핵 강국, 美 본토도 일격에 잿더미로 만들 모든 능력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위협하며,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정의의 핵 강국은 침략자들의 멸망을 선언한다)

* 미국은 “우리(北)의 주체적 핵무력 건설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며 “對北 적대시정책을 버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대외문화연락위·교육위·외교단 사업총국·국가 관광총국 해당 일꾼들, 6월 7일 ‘영국에서 테러사건들(6.3, 런던 브리지 테러 등)로 인명피해 발생’ 관련 駐北 영국 대사관 조의 방문(중앙통신)

■ 김옥화(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이사), 6월 7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06.08.(목)

■ 【「조선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 대변인 성명(6.7.)】 日 아베 수상 등 당국자들의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對北 비난(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및 압박 움직임(독자제재 등)에 대해 “일단 유사 시 미국보다 먼저 일본 열도가 통째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대표단(단장: 리흥식 외무성 대사), 제10차 장애자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美 뉴욕 유엔본부, 6.13 ~ 15)에 참가하기 위해 6월 8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駐北 세계식량계획(WFP) 임시 대리대표와 대표부 성원들,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 협동농장 모내기 지원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위 제23기 제4차 회의, 도쿄 조선회관에서 6월 3일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 허종만(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보고),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참가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8.)】 美 국무장관의 對北압박 발언(모든 나라들이 北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한 전략을 재고하도록 압박) 관련 “對北정책에 대한 비난을 무마시키고 우리(北)에 대한 국제적 압박책동에 매여 달려 보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력의 다양화·고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힘차게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미국은 완전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 탁[27]에 나오라는 날강도적 요구까지 내대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리의 위력한 전략무기들의 자랑찬 성공 폭음은 만리창공에 끊임없이 메아리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 北 대표,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 전원회의(6.6.)에서 유엔 對北제재 결의 2356호 관련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겨냥한 악랄한 적대행위'라고 규탄·배격(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란 대통령에게 테러피해 관련 6월 8일 위문 전문(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네팔 수상에 선거된 '쉐르 바하두르 데우바'에게 6월 7일 축전(중앙통신)

□ 리용호(외무상), 유엔 인구기금 집행국장 사망 관련 유엔 사무총장에게 6월 8일 조전(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황진도), 6월 8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조경환 아이찌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6월 8일 귀국(중앙통신)

06.09.(금)

■ 北 외무성 실무대표단(단장: 허용복 국장), 최근 에티오피아 방문(중앙통신)

- 방문기간 에티오피아 외무성 정치문제 담당 국무상을 의례 방문하고 공공기업성 국무상, 외무성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을 각각 만나 담화
- 양측은 앞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대표단 내왕과 접촉,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좋게 발전하고 있는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함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채택과 미국의 단독제재에 대해 '우리(北)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무장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라며 "그를 통하여 우리 핵무력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거나 막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보다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중앙통신/제재결의 조작자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 美 대북정책 4대기조 관련 "미국의 진짜 대조선 정책의 본질은 핵전쟁 도발책동에 있다"며, "우리(北)는 미국이 떠드는 외교적 해결책, 평화에 대해 한조각의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감출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침략적 본질)

27) 탁 : 『북한어』 ①식탁, 원탁, 탁자, 탁구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②(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식탁, 원탁, 탁자, 탁구대 따위를 세는 단위

■ '우리(北)의 자위적 핵무력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평화 수호의 확고한 담보이며 절대적 힘'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 타격수단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평화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

■ 北 대표단,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7일 연설(중앙통신)

- "반공화국 인권결의와 유엔 北인권 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는 인권의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이를 전면 배격하는 우리(北)의 입장은 일관함."
- "유엔 인권이사회는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 실태와 일본의 특대형 과거 범죄, 남조선의 우리 여성 공민들에 대한 집단 유인납치 만행 등 제도적인 인권유린 행위들부터 문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임."

■ 北 외무성·대외경제성·대외문화연락위·외교단 사업총국 해당 일꾼들, '이란 테헤란 연쇄 테러' 관련 6월 9일 駐北 이란 대사관 조의 방문(중앙통신)

■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김영재(대외경제상)·신홍철·오영철 등을 초대한 가운데 6월 9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06.10.(토)

■ 【「아시아태평양 평화위」 대변인 성명(6.10.)】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은 '우리(北)의 핵뇌관을 건드리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자멸적 망동'이라며 '北 핵 포기 不可·핵 무력 강화 및 미국의 제재·군사적 압박에 초강경 대응' 천명(중앙통신)

* 미국의 '대북 단독제재' 발표 및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우리(北)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적대행위'라고 비난 및 '우리(北)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선택한 주체적 핵무력 강화의 길로 꿋꿋이 걸어갈 것' 강조(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北)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조선이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발사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며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임박 시사 및 이는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의 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파산은 역사의 필연이다)

■ 美 핵잠수함 '샤이엔'호 부산 입항·주한 미군의 '비전투원 소개' 훈련(6.6.~9.)에 대해 미국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언급은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며, '미국이 우리(北)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면서 북침 핵전쟁 도발도 서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자멸의 함정을 파는 무모한 도발)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월 10일 미얀마 대통령(틴 쩌)에게 '군용기 추락사고 인명 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

■ 「총련」 새 세대 일꾼 대표단(단장: 배준렬 재일본 조선 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위원장), 6월 10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6월 10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06.11.(일)

■ 美 핵 항공모함 타격단 한반도 수역 전개 계획 거론 "조미관계는 이미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관계로 새롭게 정립된 상태에 있다"며 '미국은 객기나 부린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민주조선)

■ "외세에 의존하며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외면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민족의 대단결은 자주통일의 근본방도)

■ 美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지지 관련 "남조선 당국자들은 일부 민간교류의 허용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

-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북남 사이의 불신을 격화시키는 후과를 빚어내고 있다."

06.12.(월)

■ 日 아베 총리의 G7 정상회의(이탈리아)에서의 대북발언(北 중대한 위협, 강경대응)에 대해 '일본이 우리(北)에게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강위력한 탄도 로케트의 과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푼수 없는 입방아질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

■ 김정은, 러시아 국경절에 즈음하여 푸틴 대통령에게 6월 12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신임 네팔 부수상 겸 외무상(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에게 6월 12일 축전(중앙통신)

■ 駐北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성원들, 自國 국경절에 즈음하여 6월 12일 해방탑에 화환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재일 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 조명호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웅 히로시마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 6월 12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평양방송)

06.13.(화)

■ 5월은 '우리(北)의 주체적 핵 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승리의 달'이며, "美 본토안전에 대한 위협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주체조선의 위력·의지를 외면하지 말 것'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주체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 허용복(北 외무성 국장) 일행, 최근 적도기니 방문 및 '北-적도기니 외무 및 협조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 체결(중앙통신)

- 여러 급의 대표단 내왕을 활성화하고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조를 확대발전 시킬 데 대해 토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월 12일 필리핀 대통령(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필리핀 독립 119주년' 축전 및 '양국 친선 협조관계 발전'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06.14.(수)

■ 美 무인 급유기 개발과 새 핵 항공모함 건조계획에 대해 '미국은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평화파괴의 원흉'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

■ 리흥식(北 외무성 대사),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과 6월 12일 유엔 청사에서 담화(중앙통신)

- "공화국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날조 자료들을 근거로 들고 나오는 극도로 정치화된 인권 논의나 협력은 전면 배격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진정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는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함."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일 관련 6월 1일 축전(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옥화(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이사), 6월 14일 귀국(중앙통신)

06.15.(목)

■ 北, "중앙재판소 13일부 판정에 따라 노동교화 중에 있던 미국 공민 웜비어를 13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며 '웜비어' 석방 보도(중앙통신)

■ 리흥식(北 외무성 대사), '제10차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 회의'(미국 뉴욕)에서 6월 13일 연설(중앙통신)

- "국제 인권무대에서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철저히 배격하며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함."

- "국제 인권분야에서 장애자 권리 보호를 비롯하여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함."

■ 박봉주(내각 총리), '방글라데시, 폭우·산사태로 인명피해 발생' 관련 同國 수상(쉐이크 하시나)에게 6월 15일 위로 전문(중앙통신)

■ 재중 조선인 총연합회,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北 철도성 대표단(단장 : 장혁 철도상), '철도 협조기구' 제45차 장관회의(러시아 소치) 참가 후 6월 15일 귀환(중앙통신)

□ 北 사회주의 여성동맹 대표단(단장 : 채춘희 여맹 부위원장), '국제 민주여성연맹 서기국 회의'(이탈리아 로마)에 참가하기 위해 6월 15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재일 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 허경 고베 조선 고급학교 교장), 6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재일 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 김찬욱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6월 15일 귀국(중앙통신)

06.16.(금)

■ 【「외무성」 보도(6.16.)】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북제재 소동'은 '우리(北)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고 사상과 재도를 한사코 없애보려는 극악무도한 反北 적대행위, 침략행위'라고 비난 및 '핵무력 강화조치들은 더욱 다그쳐지게 될 것'이라 강조(중앙통신)

* 김형훈(北 보건성 부상), "미국의 제재로 인해 北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보건협조 물자납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국제기구 책임자들(유엔 아동기금 집행국장,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반대 세계기금 집행국장)에게 '대책 수립 요구' 편지 6월 12일 발송(중앙통신)
  - '유엔의 인도주의 협조활동까지 정치의 농락물로 전락되어 있는 현 상황이 인간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정상적인 보건협조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데 주의를 환기'시키고,
  - '유엔 기구들의 물자 수송은 유엔이 응당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인 것만큼 해당 기구들이 적절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미국이 중국과 뒤골방에서 '제재 결의안'을 꾸며내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총의'로 포장하여 내리먹이는 강권과 전횡이며, 오만과 독선·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

■ 北 대표단(6.13, 제네바 군축회의 제2기 회의), '北,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6.8.)'를 "정당한 자주권 행사며,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강변 및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 등 국방력 강화조치들 강화' 표명(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방위상(이나다)의 '北 핵·탄도 미사일 위협' 발언(아시아 안보회의)은 '아시아 재침 야망 실현에 기어이 나서겠다는 것이며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짓'이라며 '일본이 反北 적대시 책동을 계속 일삼는다면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중앙통신·노동신문/스스로 올가미를 조이는 망동)

■ 허용복(北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 아메리카국 국장) 일행, 최근 앙골라 방문 및 '兩國 여러 급 대표단 왕래 활성화 및 보건, 건설, 정보기술 등 분야 협조 확대 강화' 합의(중앙통신)

■ 재일 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6월 1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06.17.(토)

■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자위적 억제력은 美 對北 적대시정책과 핵전쟁 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강위력한 수단'이라며 "미국이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여 핵을 내려놓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제재압박을 초강경으로 짓뭉개버릴 것이다)

■ 시리아 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거론 '반미적인 시리아 정부의 전복을 겨냥한 포악무도한 국가 테러행위'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변(중앙통신/우리의 선택은 천만번 정당하다)

■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6.17.)】 '세계 피난민의 날'(6.20.) 즈음 '현 시기 전대미문의 피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대외정책 때문'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동포 조국 방문단(단장: 황진도), 6월 17일 귀국(중앙통신·평양방송)

06.18.(일)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18.)】 "지난 16일 우리(北) 대표단이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 미국의 불법 무도한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외교신서물(외교행낭)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미국 정부의 '공식 사죄' 요구(중앙통신)

■ 北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15일 연설(중앙통신)

- "우리(北) 여성들을 집단 유인 납치하고도 아직까지 그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는 21세기의 전형적인 납치범죄, 특대형 인권유린 만행임."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와 인권이사회가 우리 여성들에 대한 유인 납치 문제에 계속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즉시 송환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北 대표단,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에서 6월 15일 연설(중앙통신)

-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부로서 그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나라의 크기, 정견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임."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하여 조작하고 꾸며낸 모든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것임."

■ 北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표단,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제4차 울란바토르 대화'(6.15.~16, 몽골 울란바토르)에 참가(중앙통신)

- 北 대표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며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것'이라고 강조

■ 정일심 동포(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 '김정일 당 사업 개시'(6.19.) 53주년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6월 18일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김일성·김정일 기금 대표단(단장: 김선 이사), 6월 18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06.19.(월)

■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 검토 등에 대해 "일본이 對北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 놀음에 놀아날수록 그것은 우리의 타격목표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자멸행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06.20.(화)

■ 특이동향 없음.

06.21.(수)

■ 美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대해 "선임자들이 실패의 쓴맛을 보고 역사의 오물통에 집어던진 폐기품들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 맞춘 볼품없는 조립정책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대조선 압박정책으로 얻은 것은 수치와 패배뿐)

■ 美 상원의 새로운 對이란 제재 법안 추진에 대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후과를 미치는 시한탄으로 될 것'이라고 비난(노동신문/중동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 日 자위대의 美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F-35) 생산·실전 배치 계획에 대해 "우리의 위협을 걸고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의 책동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일본이 우리를 어째보려고 움쩍거리기만 하면 우리는 강위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사무라이 후예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블럭 불가담 운동' 의장(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6월 15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비난' 편지 발송(중앙통신·중앙방송)

– "'블럭 불가담 운동'은 미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하는 단합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06.22.(목)

■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6.22.)】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출격·폭격훈련(6.20.) 등 '對北 군사적 위협'과 월 1차 이상 출동 언급은 "우리(北)를 핵 및 탄도로켓 위력 강화로 떠미는 추진력으로 된다"며 '핵무력 고도화 다그칠 것'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B-1B'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출격·연합훈련(6.20, 의도적 노출·즉시 언론 공개) 및 해군 이지스 구축함 '마스틴'호의 우리 측(北) 경제수역 200㎞ 이상 침범, 정탐행위"는 '극도에 달한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 도발광기'라고 비난(중앙방송·중앙통신)

■ 미국의 '對北 제재·군사적 압박'에 대해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데서 출로를 찾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는 무적의 힘)

■ 韓·美·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연합 해양차단 작전훈련·함포 실탄 사격훈련) 예정(6.23.~25, 제주 주변 해역) 관련, "유사시 우리(北)에 대한 해상봉쇄 및 공격작전 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담화(6.22.)】 美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對쿠바 정책' 선언은 '쿠바 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쿠바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 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제자주·사회주의 투쟁 지지' 피력(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fa.gov.kp) 개설(중앙통신)

–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한일 협정' 체결('65.6.22.) 52주년 관련 同 협정은 '일본의 침략적인 협정이며, 사대매국 역적들의 매국배족적·불법적 문서'라고 배격 및 '일본의 역사왜곡·군국화 책동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평양방송/침략적 야망과 매국배족의 산물 남조선-일본 협정)

■ 리수용(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6월 22일 駐北 스웨덴 특명 전권대사(산러브 보 토르켈)의 이임 방문 접견 및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최일 駐 벨기에 北 특명 전권대사, 6월 14일 주재국 국왕(필리프)에게 신임장 제출(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중국 대사관 성원들, 6월 22일 순안구역 北-中 친선 택암 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

■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간사회 제9기 제4차 회의, 6월 10일 도쿄 조선 상공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평양방송)

06.23.(금)

■ 【「외무성」 대변인 담화(6.23.)】 웜비어 사망 관련 '고문·구타설'은 '정치적 모략'이라 배격하며,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北)'라고 주장(중앙통신)

-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 주었음."
- "웜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1주일도 못되어 급사한 것은 수수께끼임."
- "웜비어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희생자임. 오바마 정부가 웜비어 석방을 한 번도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음."

■ 美 정계가 사드 배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범, 평화파괴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울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파렴치한 날강도, 평화의 원쑤)

■ 美 상원의 對러시아 신규 제재안 채택에 대해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저(美)들의 이해관계와 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의 이익을 서슴없이 해치는 제재책동이 국제사회의 반대 배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고 주장(중앙통신)

-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그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 총련 새 세대일꾼 대표단(단장: 배준렬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만경대와 청년운동 사적관·전승기념관·류경 치과병원 참관(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룩셈부르크 국경절 즈음 同國 대공에게 6월 23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06.24.(토)

■ 6.25전쟁 67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전쟁은 미제가 세계제패 야망 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었다"고 왜곡하고,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절대병기까지 틀어쥔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케트 맹주국인 조선에서 미국이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참패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미국이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참패뿐이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잠비크 국경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6월 20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당 중앙위원회,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게 6월 24일 '당 창립' 55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파키스탄 연쇄 폭탄 테러' 관련 同國 수상에게 6월 24일 위로 전문(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北 적십자회 대표단(단장 : 백용호 집행부 부위원장), 스페인을 방문하기 위해 6월 24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06.25.(일)

■ 美 B-1B 전략폭격기 편대의 남한 공군과 연합훈련(6.20.)과 韓·美·캐나다 연합 해상훈련(6.23.~25.)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더 한층 격화시키는 모험적 망동'이라며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의 대화 거론은 우리(北)를 기만하고 북침전쟁 기도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의 불씨를 날리는 모험적 망동)

■ 美 국무·국방 장관의 아프가니스탄에 1만 명 규모 미군·나토 무력 증파 추진(테러 소탕 목적) 회견 및 최근 요르단 배치 다목적 방사포의 시리아 타느프 군사기지 이동배치는 '세계 열점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흉책의 발로'라며 '미국의 세계지배 책동에 각성 및 철저한 배격' 호소(중앙통신·민주조선)

■ 리용호(외무상), 6월 25일 슬로베니아 부수상 겸 외무상(칼 에르쟈베츠)에게 '슬로베니아 국경절' 축전(중앙통신)

■ 김명식 駐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北 대사, 6월 20일 주재국 대통령(호스텡 아르상주 뚜아데라)에게 신임장 제출(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기금 대표단, 6월 25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06.26.(월)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작별 방문한 駐北 스웨덴 대사와 6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웨덴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 6월 20일 ~ 23일 북한 방문(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수용(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당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를 만나 '한반도 정세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창건 20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6월 26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조명호 교토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6월 26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6.27.(화)

■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매티스 美 국방장관의 발언(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에 대해 "핵위협과 경제제재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北)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로 하여 조미대결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가증되는 대결소동, 압박소동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미국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캄보디아 인민당 중앙위원회에게 6월 27일 '당 창립' 66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라마단 종료와 관련하여 최희철(외무성 부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6월 26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 駐北 무관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6.29.) 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6월 27일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

-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박영식(인민무력상)이 접수

* 駐北 무관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1주년에 즈음하여 6월 27일 류경 안과종합병원·평양 가방공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김영웅 히로시마 조선 초중고급학교 교장), 6월 27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6.28.(수)

■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28.)】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 성명 채택'(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에 대해 "국제 금융 감독기구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 우리(北)를 계속 압박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이러한 기구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해 심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국가전복 책동은 자위적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이라크·리비아)"며 '우리(北)의 핵 억제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국보'라고 강변(중앙통신·노동신문/변함없는 국가전복 정책의 발로)

■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北)의 선택·결단은 천만번 정당하다"며 '우리(北)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 억제력 강화뿐'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천만번 정당한 선택)

■ 美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패권주의의 연속판이며 그 확대판, 전쟁교리이며 미국판 나치즘'이라고 폄하하고 대북정책(핵위협 공갈·경제제재 등) 등 비난 및 '미국 제일주의 반대투쟁' 선동(중앙방송·노동신문/21세기의 나치즘-《미국 제일주의》를 배격한다)

■ 韓美 공군의 '레드플래그' 훈련(6.12.~23, 알래스카)과 군산 美 공군기지에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배치 관련,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노골적인 침략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 군사적 긴장상태는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6월 27일 신임 베네수엘라 외무상(사무엘 몬카다)에게 축전(중앙통신)

■ 駐北 국제기구 대표부·협조기구(세계식량계획·유엔 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유엔 인구기금·유럽동맹 협조대표부·스위스 외무성 협조사무소·北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28] 국제연맹 대표단) 성원들, 6월 27일 가뭄 피해(황해남도 은률군·안악군·삼천군 일부 협동농장들) 상황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들은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피해를 가시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

06.29.(목)

■ 【「북침 핵전쟁연습 반대 전민족 비상대책위」 대변인 담화(6.29.)】 美 군사적 압박(니미츠·레이건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과 B-1B 전략폭격기 모의 폭격훈련 등)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되었다고 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광고가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북침 핵전쟁 도발 흉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 역사상 가장 끔직한 재앙을 저들의 본토에서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 것' 위협(중앙통신)

28) 적반월회 : 『북한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에서 "적십자회"를 이르는 말.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네팔 특명 전권대사의 신임장 접수(6.29.) 및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駐北 네팔 신임 특명 전권대사와 6월 29일 담화(중앙통신)

* 네팔 기자협회, '김정은 상장' 同國 北 특명 전권대사에게 전달(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北 사회주의 여성동맹 대표단(단장: 채춘희 여맹 부위원장), 국제 민주여성동맹 서기국회의(이탈리아 로마) 참가 후 6월 29일 귀환(중앙통신·평양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하창국 부학부장), 평양 도착(6.29.)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허경 고베 조선고급학교 교장), 6월 29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06.30.(금)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30.)】 美 국무부의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북한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 발표에 대해 '우리(北)를 고립 압살해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패는 인권 타령을 늘어놓으며 우리(北)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려고 접어들었다가 불벼락을 얻어맞은 오바마 패의 과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한다"고 촉구(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테러 등 준비죄(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테러와 범죄 방지의 미명하에 언론과 국내 진보세력들에 대한 감시와 정치적 탄압을 합법화하여 군국주의 파쇼화를 다그치려는 위험한 망동'이라며 "일본은 군국화, 파쇼화가 히틀러의 비참한 운명을 답습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낱낱이 드러난 파쇼국가의 몰골)

■ 【「조선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6.30.)】 '북한 反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의 '北 마식령 스키장' 관련 발언('스키장 설비 대부분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구입, 스키장 운영에 아동노예 노동력 이용' 등)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며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러한 생뚱같은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해대는 것은 용서 못할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콩고 민주공화국 독립 57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6월 30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수단 혁명절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6월 30일 축전(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러시아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울라지미르 이사코프 러시아 공산당 비서), 6월 30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 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윤성진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교장), 6월 30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금월의 약사

- **06.01.** 국제 아동절(1950년 4월, 국제여성연맹에서 제정)
- **06.01.**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2007년)
- **06.02.** 북한 선박 제주해협 무단 통과(2001년)
- **06.02.** 제9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개최(2004년 6월 2일 ~ 5월, 평양)
- **06.03.** '6.3 사태'('남조선 청년학생 봉기 기념일')(1964년)
- **06.04.**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일(1937년)
- **06.04.** 「민주조선」 창간일(1946년)
- **06.05.** 김형직(김일성 父) 사망일(1894년 7월 10일 ~ 1926년 6월 5일)
- **06.05.** 세계환경의 날(1972년 12월 15일, UN 제27차 총회에서 제정)
- **06.06.** 「조선소년단」 창립절(1946년)
- **06.0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6년)
  ※ 제12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 **06.07.** 지방 공업절(1970년 4월 6일 제정)
- **06.10.** '反日 6.10 만세 시위 투쟁' 기념일(1926년)
- **06.10.** '6.10 민주항쟁'(6월 민중항쟁) 기념일(1987년)
- **06.12.** 북한 제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2009년)
- **06.13.** 북한, 'IAEA 탈퇴' 선언(1994년)
- **06.15.** 제1차 연평해전(1999년)
- **06.15.**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일
  ※ 남북 정상회담 개최(2000년 6월 13일 ~ 15일, 평양)
- **06.16.**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1998년)
- **06.17.**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1차 회담 개최(1995년 6월 17일 ~ 21일, 베이징)
- **06.19.** 김정일 당 사업 개시일(1964년)
- **06.19.**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2006년 6월 19일 ~ 30일, 금강산)
- **06.20.** 포병절(1982년 10월 28일, 제정)
- **06.20.** 제3차 남북 경제회담 개최(1985년, 판문점)
- **06.21.**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2005년 6월 21일 ~ 24일, 서울)

- **06.22.** 북한 잠수함 속초 침투(1998년)
- **06.22.**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1999년 6월 22일 ~ 26일, 베이징)
- **06.22.** 민족 경제협력 위원회 설립 결정(2005년)
- **06.23.** 南,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선언(6.23선언)' 발표(1973년)
- **06.23.** 北,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일(1973년)
- **06.23.** '선박 공업절' (1988년 4월 21일 제정, 1948년 6월 23일 소급 설정)
- **06.23.** 제3차 6자 회담 개최(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06.25.** 6.25전쟁('조국 해방전쟁') 발발(1950년)
- **06.27.**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2000년 6월 27일 ~ 30일, 금강산)
- **06.27.**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2008년)
- **06.29.** 제2차 연평해전(2002년)
- **06.29.** 김정은「국무위원장」추대일(2016년)
- **06.30.** 「조선 카톨릭교협회」결성일(1988년)
- **06.30.** 개성공단 착공식(2003년)
- **06.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2005년)